보험연구원 세미나

2022년 보험산업 전망

김 세 중 (동향분석실장)

2021.10.8.

목 차

Ⅰ. 경제·금융 환경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Ⅲ.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I 경제·금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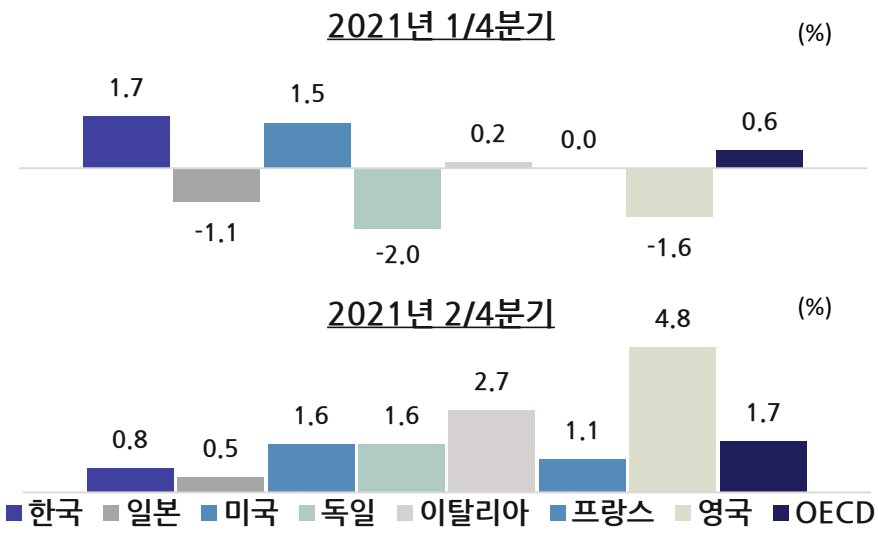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1)

· 2021년 1/4분기, 2/4분기 세계경제(OECD)는 각각 0.6%, 1.7% 증가하면서 회복세 확대
- 특히 2020년 GDP 감소가 두드러졌던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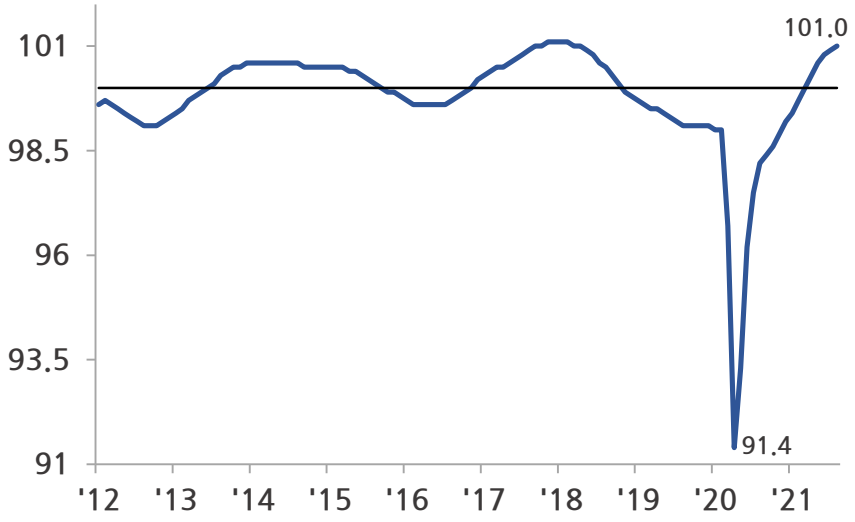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3월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 확대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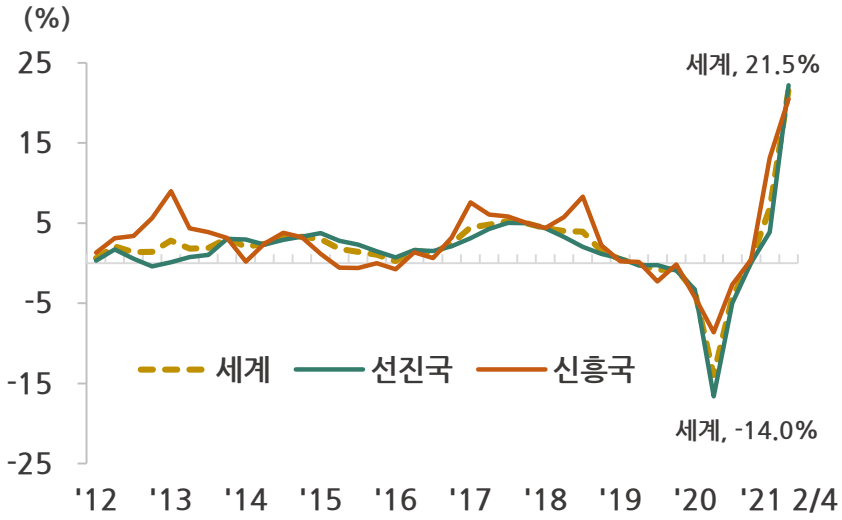
자료: OECD

1. 세계경제 (2)

·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감소분을 상회하는 큰 폭 회복세
-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선진국의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회복세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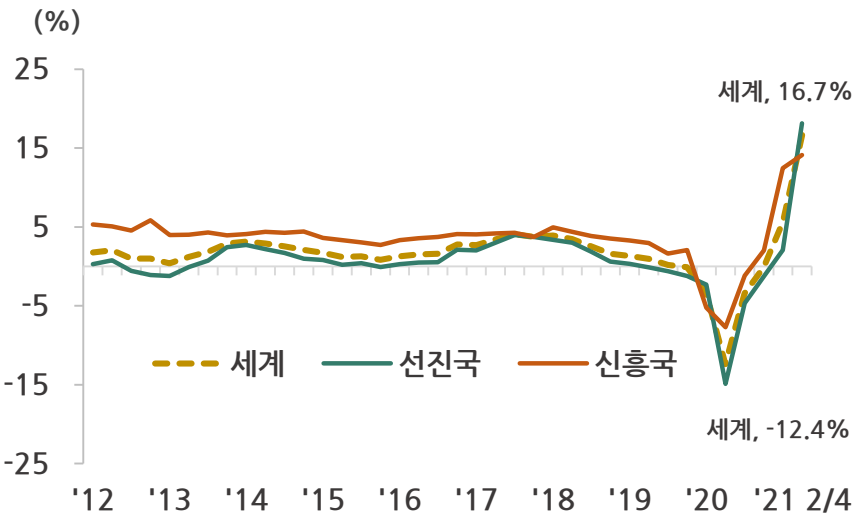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 회복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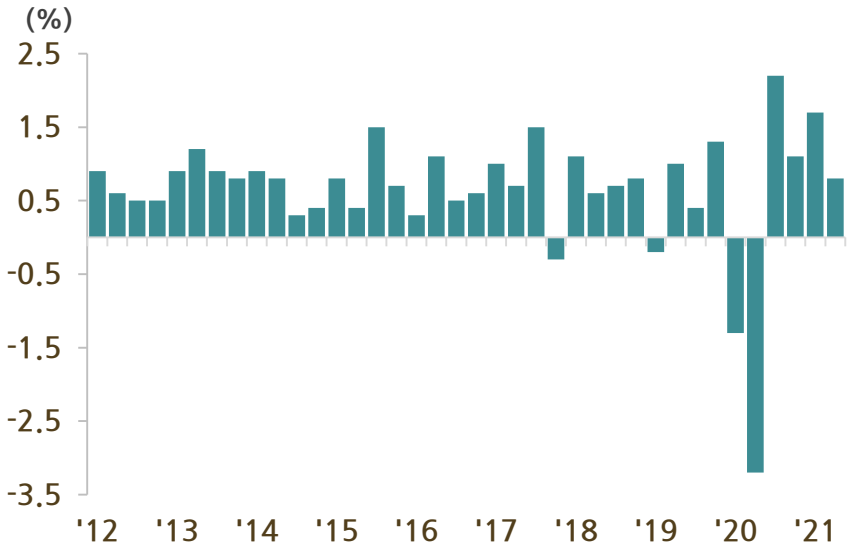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국내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1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기 대비 1.7%, 0.8% 증가
  - 선진국 중심의 무역규모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회복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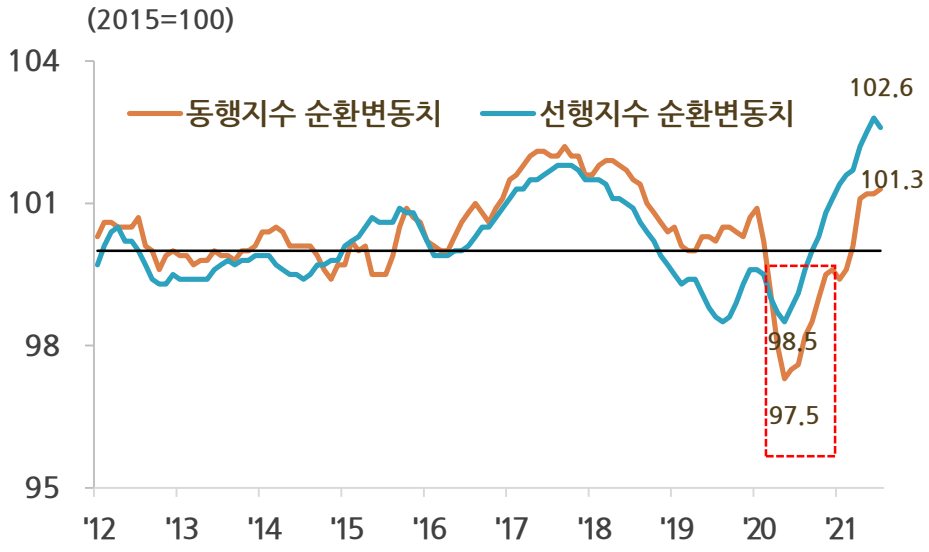
· 2021년 7월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큰 폭 상회한 102.6으로, 경기회복 기대 확대

분기별 GDP 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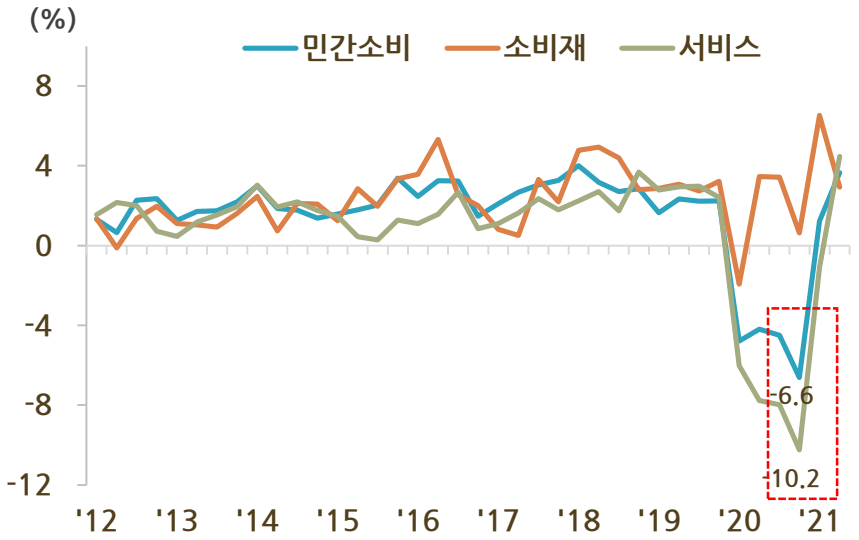
2. 국내경제: 민간소비

· 2021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전환 불구 상대적으로 미약한 회복세
- 특히 대면영업이 필요한 서비스업의 경우 재화소비에 비해 회복세가 크지 않음

· 2021년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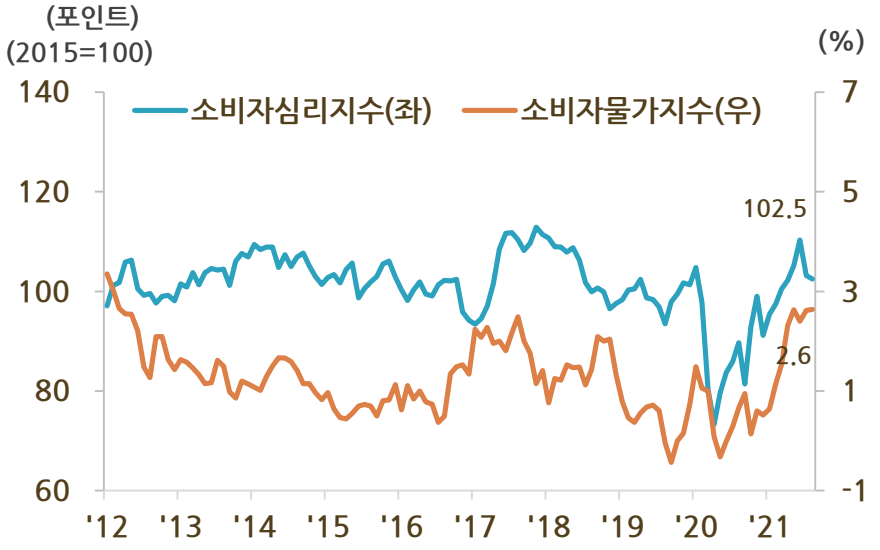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대로 확대

민간소비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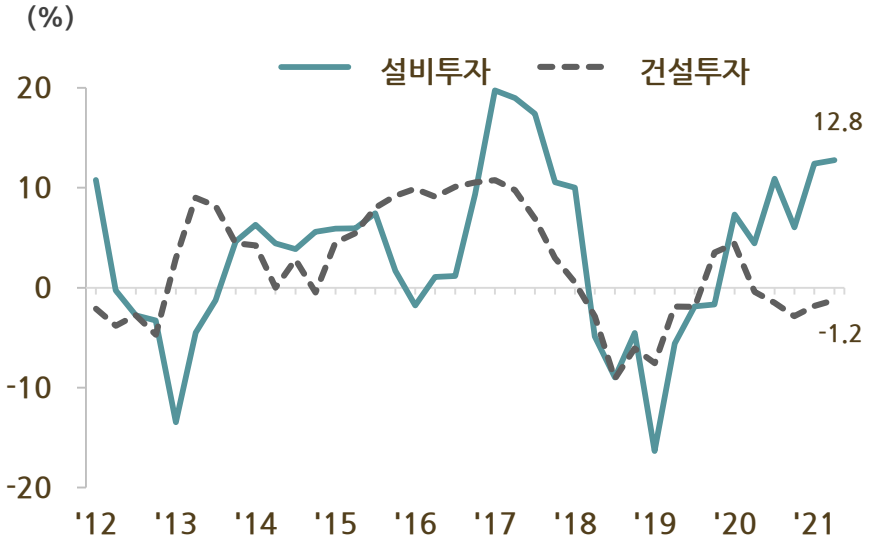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2. 국내경제: 투자 및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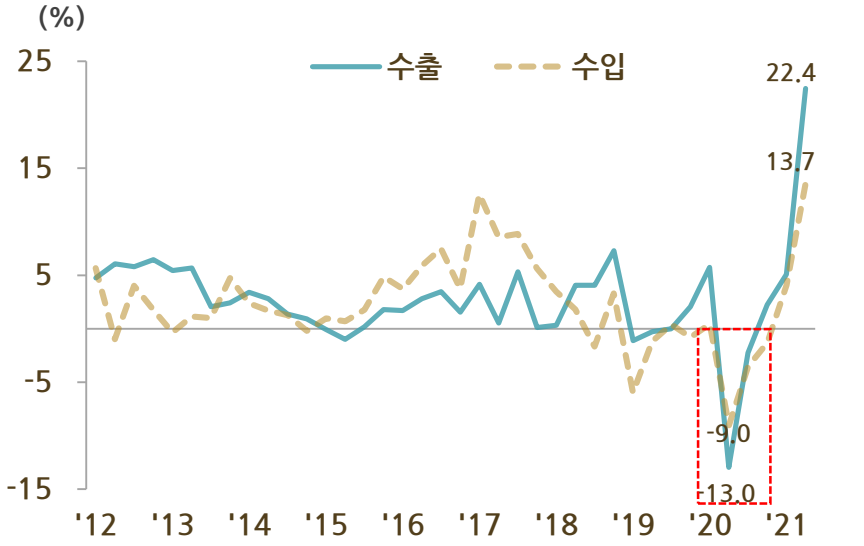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2020년부터 증가세 지속 중이나,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
- 2021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확대 영향으로 큰 폭 증가
  - 특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금리

·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국고채 1년 금리는 5월 이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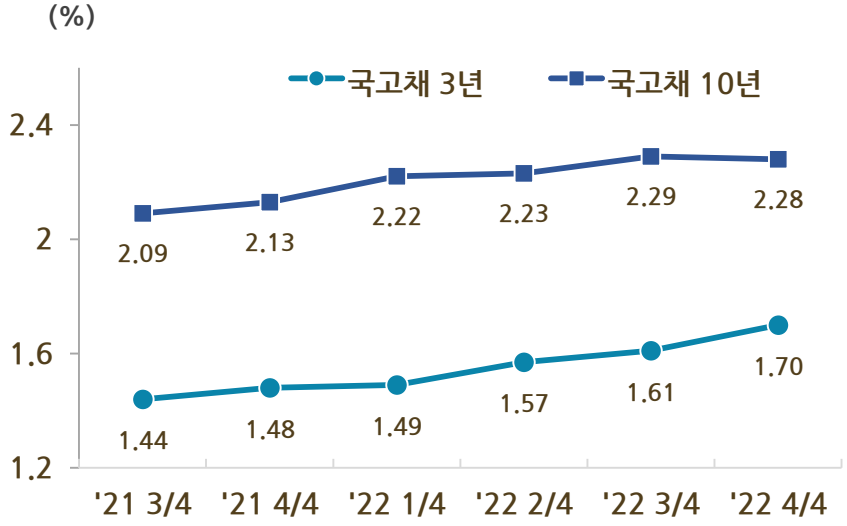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장단기 국고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세 전망

- 장기물 국고채 금리보다 단기물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주: 2021년 9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주요 투자은행 금리 전망



주: 투자은행 금리전망 가중평균값으로 전망시점은 2021년 8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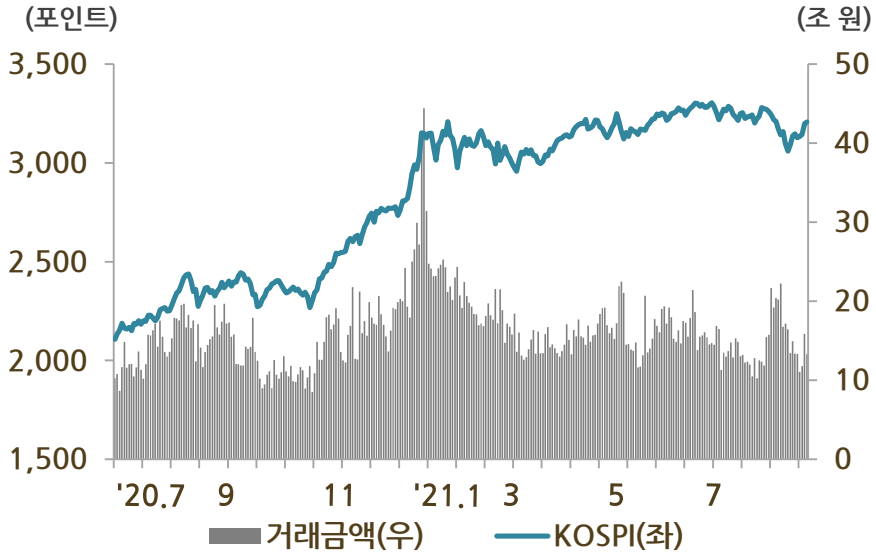
3. 금융시장: 주가지수

· **코스피 지수는 2021년 1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횡보 중**

- 2021년 하반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그널과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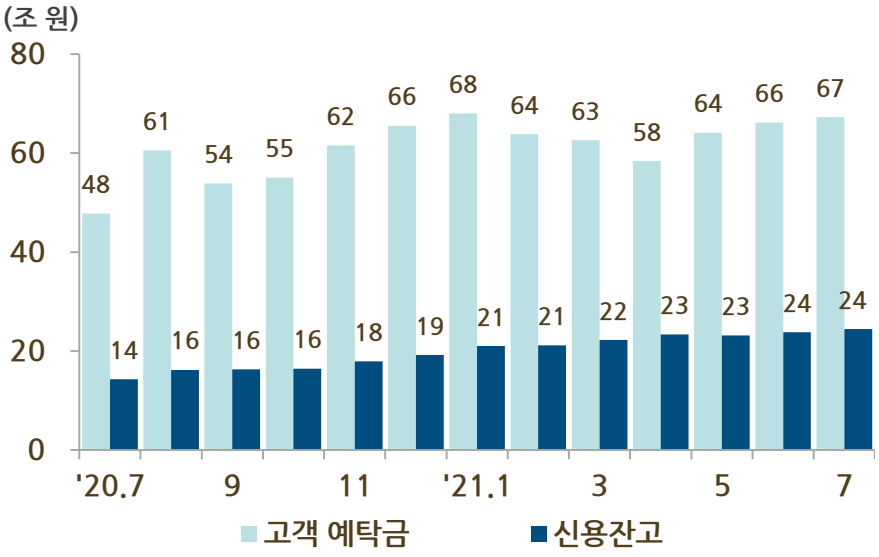
·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2021년 1월 68조 원 돌파 후 7월에도 유사한 수준 유지**

주가지수 및 거래금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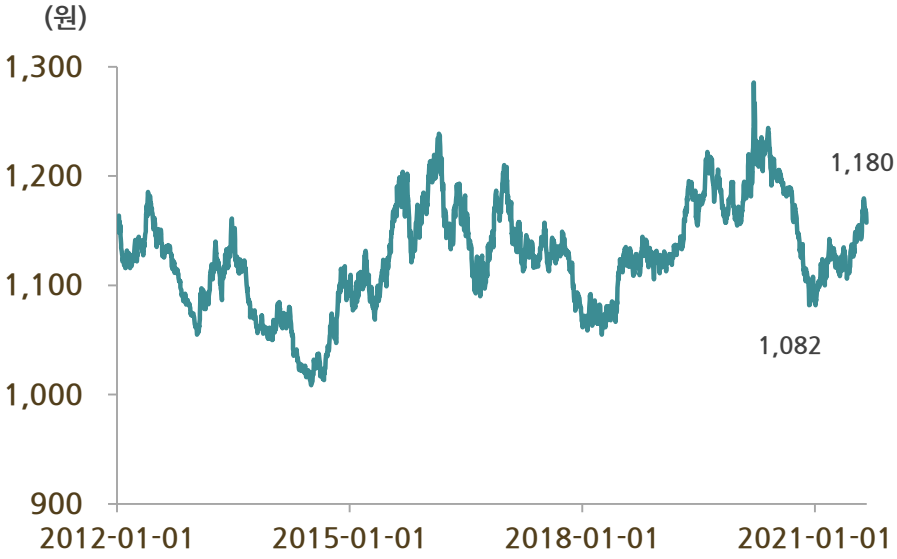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3. 금융시장: 환율

· 원/달러 환율은 2021년 1월 1,100원을 하회하며 급락 후, 1,180원 수준까지 상승
- 미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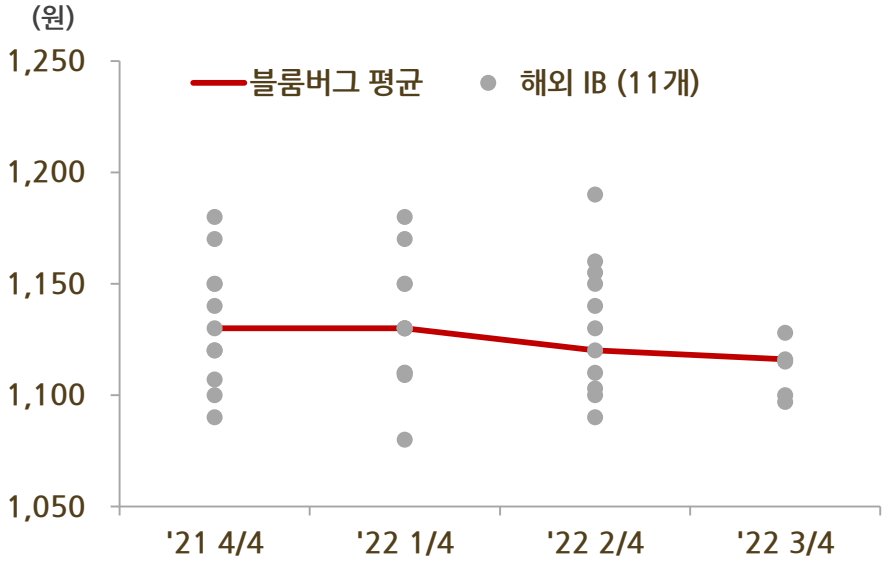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원/달러 환율의 소폭 하락 전망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해외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주: 2021년 9월 기준임
자료: Bloomberg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2년 우리나라 GDP가 3.0~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2021년 2%대 소폭 증가 후 2022년 3~4%대 수준의 증가 전망
- 설비투자와 수출입은 2021년 높은 증가세 후 2022년 2~3%의 제한적 회복 예상, 건설투자는 2022년 부터 회복세 확대 전망

국내외 주요기관 2022년 경제전망

(전년 대비, %)

구분	2021				2022			
	한국은행	KDI	OECD	IMF	한국은행	KDI	OECD	IMF
국내총생산	4.0	3.8	4.0	4.3	3.0	3.0	2.9	3.4
민간소비	2.8	2.5	_	_	3.4	4.0	_	_
설비투자	8.8	8.5	_	_	2.1	2.8	_	_
건설투자	0.9	1.4	_	_	2.9	3.5	_	_
상품수출	8.9	8.6	_	_	2.7	2.8	_	_
상품수입	9.5	7.9	_	_	3.0	3.2	_	_

자료: 한국은행(21. 8), KDI(21.5), OECD(21.9), IMF(21. 7)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2. 2021년 상반기 성장성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5. 2021년 상반기 수익성
6. 2021년 하반기 예상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 코로나19는 저금리·유동성 확대, 개인 이동 및 활동 제약 등으로 보험산업에 예상외의 긍정적 영향

· (성장성)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불구, 저축보험·변액보험·자동차보험 고성장

· (수익성) 자산운용 환경 악화 불구,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 개선,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확산

저금리·유동성 확대

- 단기금리 하락
- 예비적 저축수요 확대
- 주식시장 호조

개인의 이동 및 활동 제약

- 재택근무, 대면접촉 기피
- 자동차 운행량 및 의료 이용량 감소

보험시장 영향

성장성

-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 저축 및 변액보험 수요확대
- 자동차보험 고성장 (개소세 인하)

수익성

- 운용자산 수익률 하락
-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 개선
-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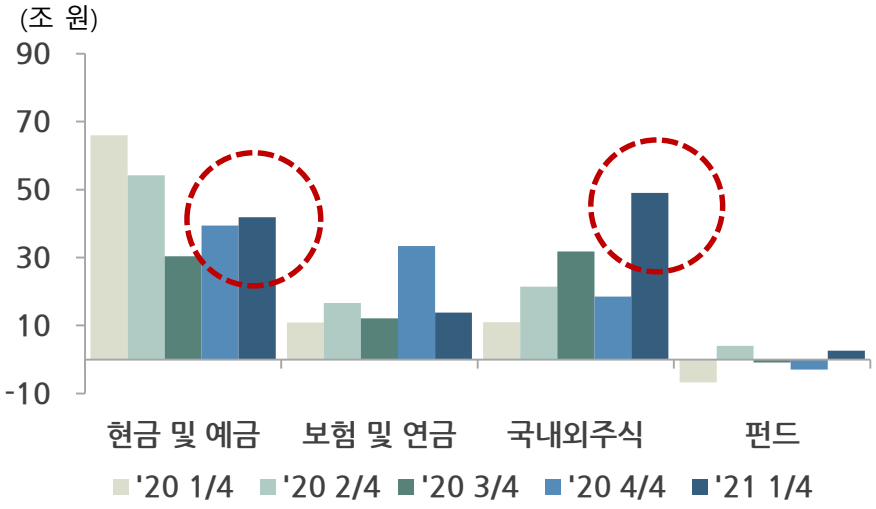
1-1. 성장성 확대 요인

· 경기변동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확대, 유동성 증가로 인한 국내외 주식 투자 증가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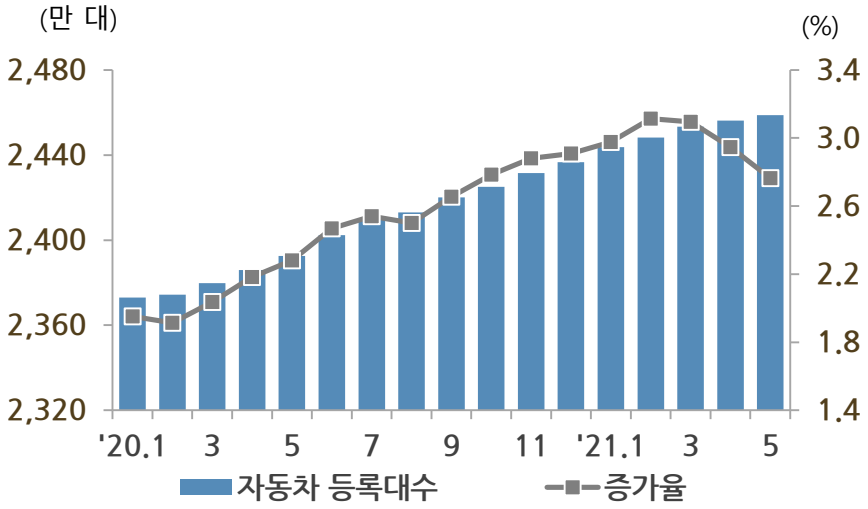
- 정부는 2020년 1~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이후 2020년 7~12월에는 30% 인하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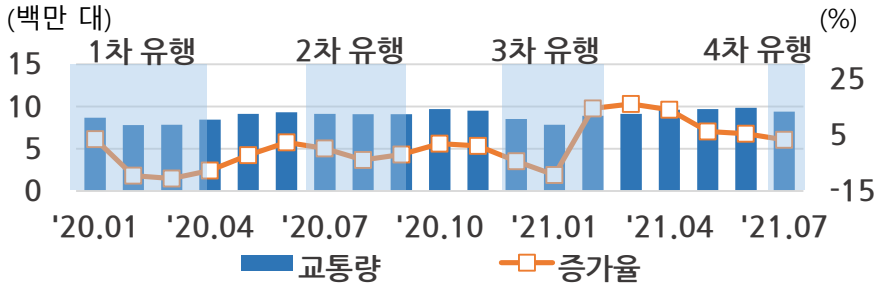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1-2. 수익성 개선 요인

· 코로나19 유행 시 교통량 및 의료 이용 둔화, 이는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에 긍정적 영향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통량 및 의료량 민감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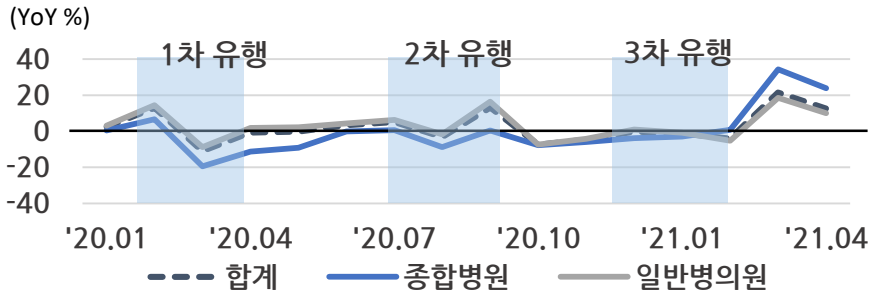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영업 손실은 큰 폭 감소

전국 교통량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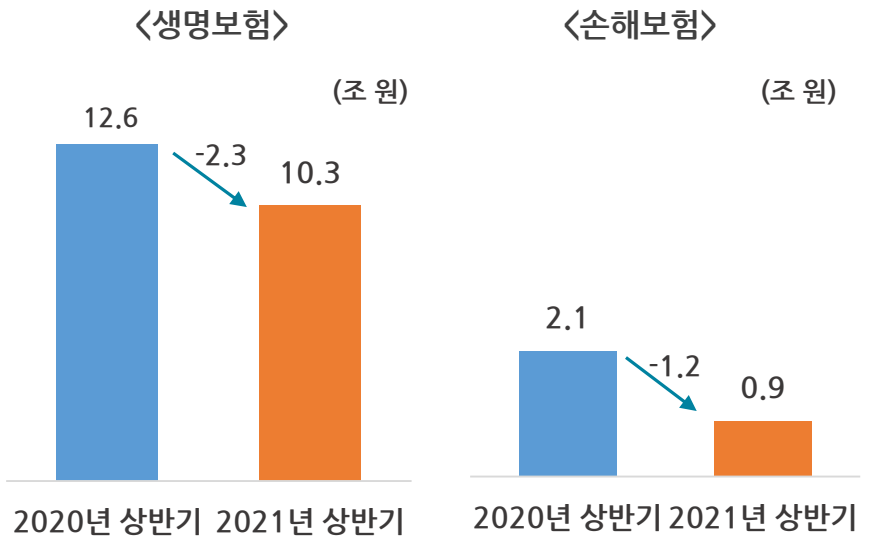
자료: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의료이용 카드 사용량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보험영업 손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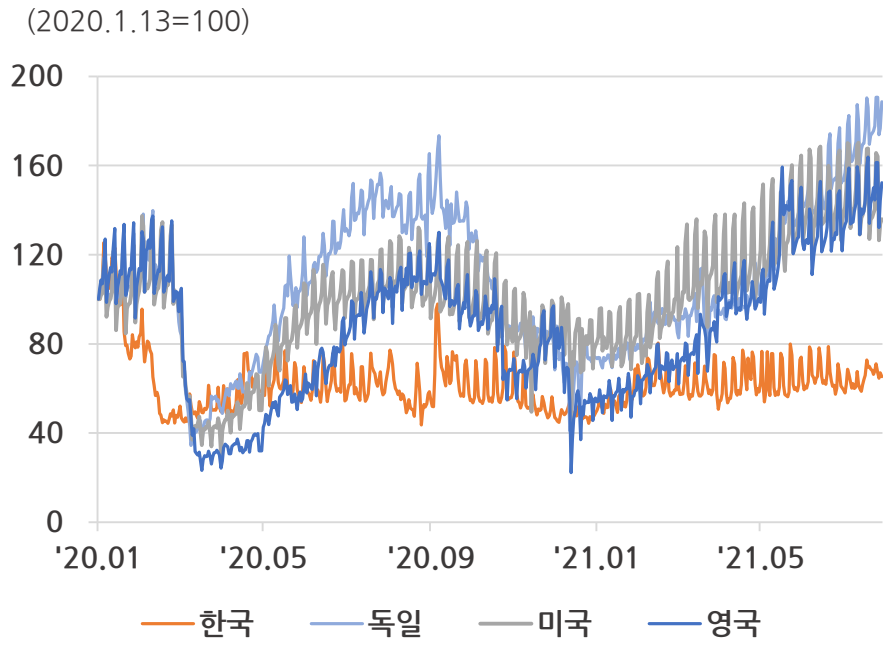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1-3. 영업환경과 보장수요

·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영업 환경 악화 지속

· 코로나19 확산은 건강관리 및 소득상실 보장 수요 증가 등 보험수요에 잠재적 영향

Apple 이동성 지표 추이



주: Apple이 제공하는 이동성 지표 중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이용량을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APPle, “Mobility Trends Reports”

보장수요 잠재적 영향

건강보장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
-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 수요 확대

노후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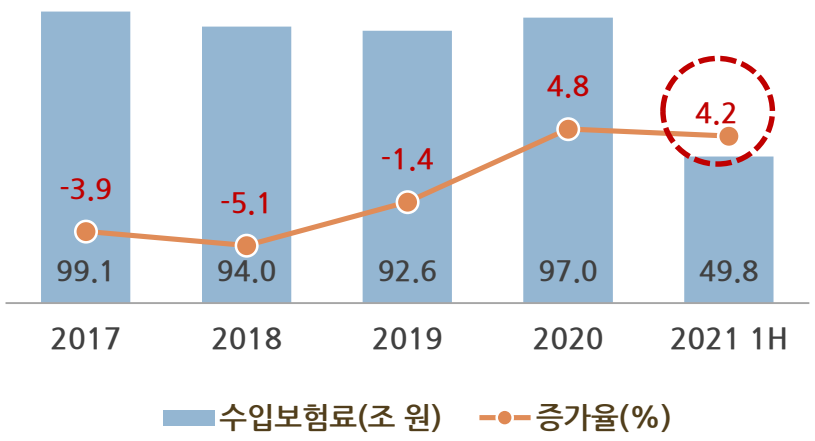
- 해외사례의 경우 장수에 대한 인식 약화
-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2. 2021년 상반기 성장성

·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성 확대 효과가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
- 202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4.2%, 5.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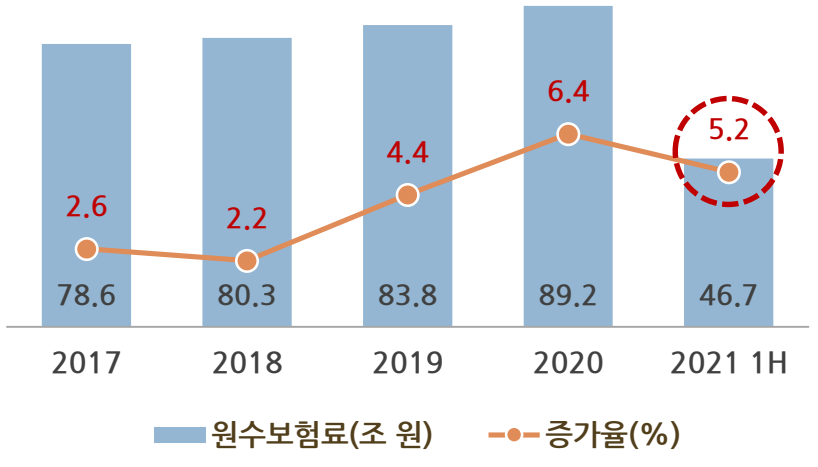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 2021년 상반기, 2020년 고성장한 저축보험 성장세가 정체되기 시작한 반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변액보험이 고성장 하면서 생명보험 성장세 유지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20 1/4	2/4	3/4	4/4	'21 1/4	2/4
보장성	4.8	3.6	4.2	4.3	3.2	2.5
저축	11.0	19.3	33.7	21.5	-0.1	1.1
연금	-7.3	4.0	1.0	1.7	12.7	-1.8
변액	-2.3	-11.3	-1.2	5.0	15.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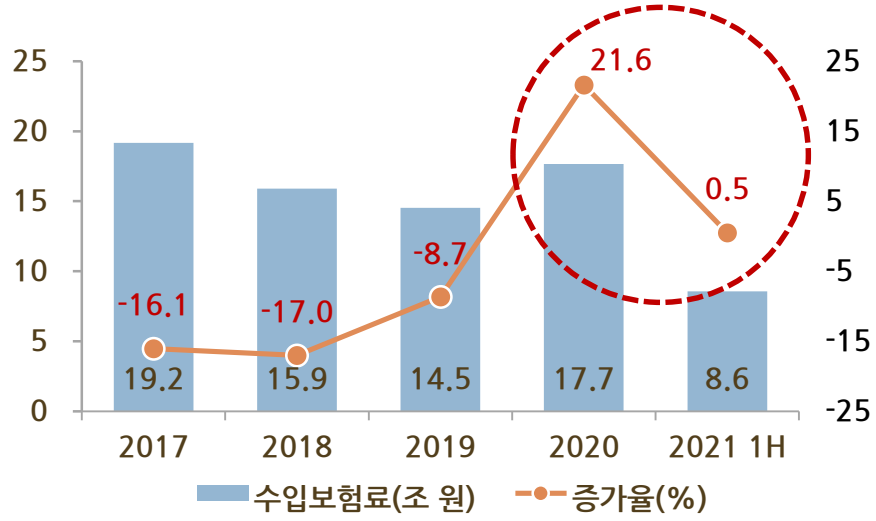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1. 저축보험

· **저축보험은 2020년 21.6% 성장 후, 202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수준의 수입보험료 유입**
- 시중금리는 2020년 2월 이후 1% 아래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보험회사 공시이율은 여전히 2%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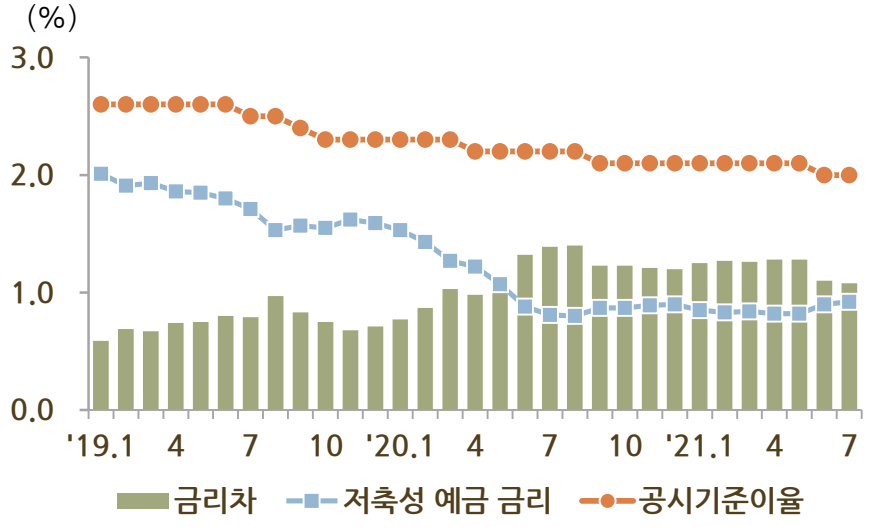
· **2021년 5월 이후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축보험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조짐**

저축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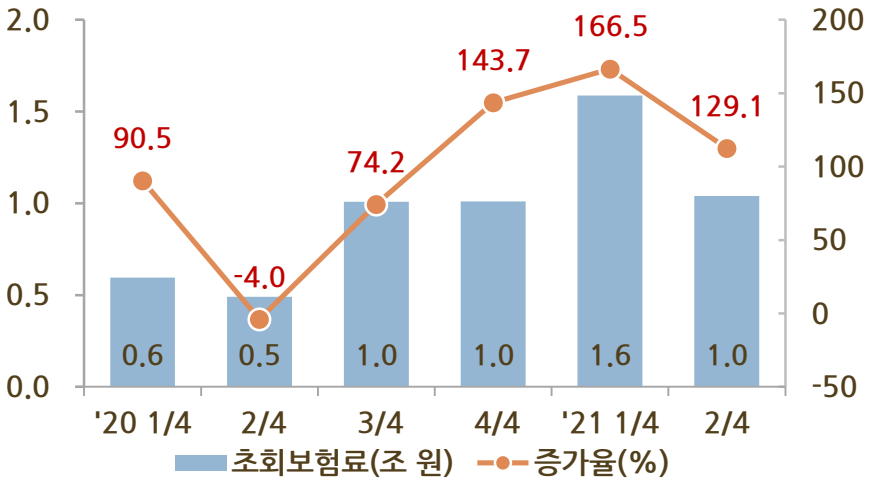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3-2. 변액보험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1년 1/4분기 KOSPI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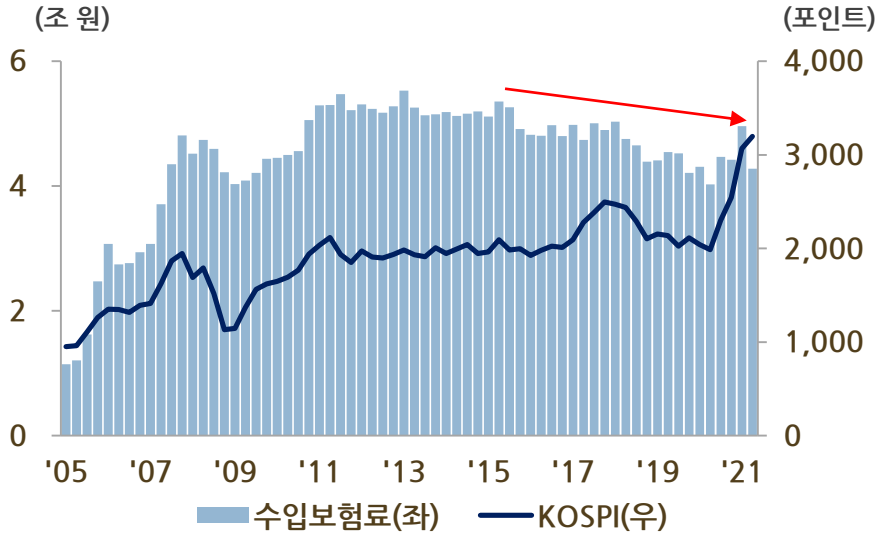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변액보험 성장이 저축보험 성장 둔화를 상쇄하며 생명보험 전체 성장에 기여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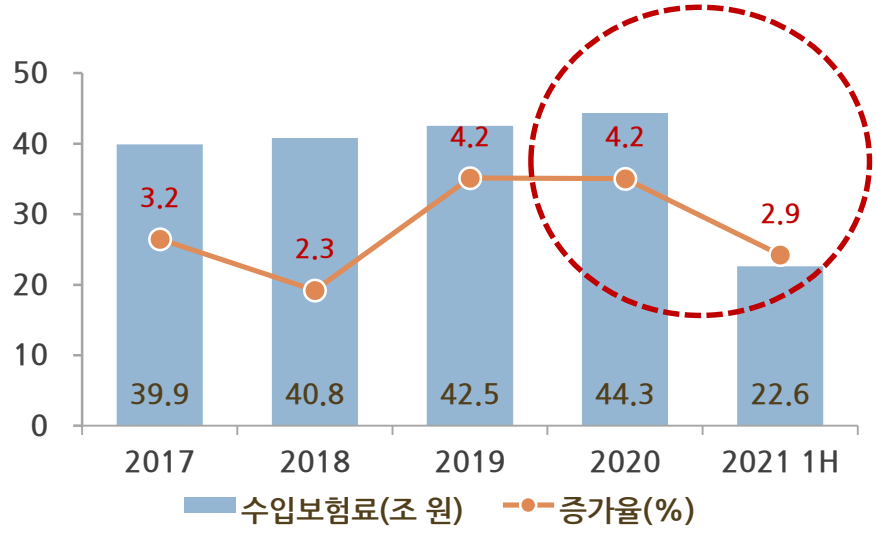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3.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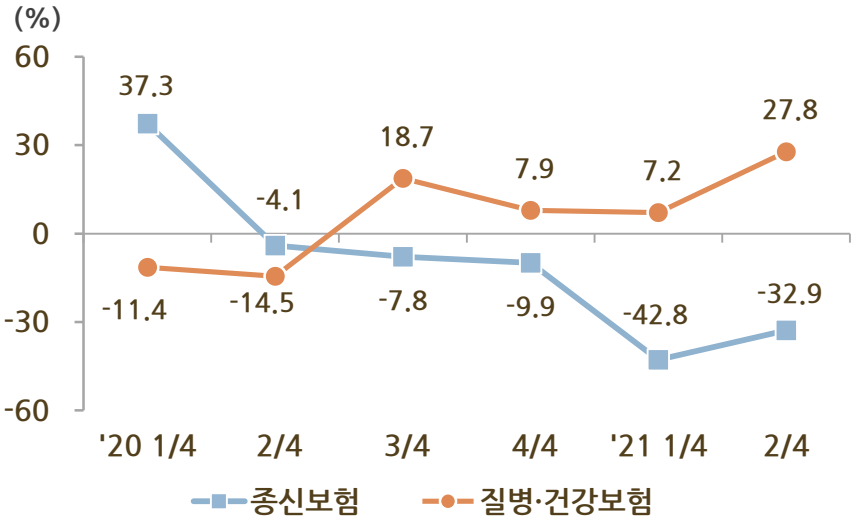
- 2020년 보장성보험은 대면 영업환경 악화 불구,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및 절판효과로 높은 성장세 유지
- 2021년 상반기 종신보험은 신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설계사 수수료 규제 등으로 판매가 큰 폭 감소
- 한편,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성장은 종신보험의 부진을 일정부분 대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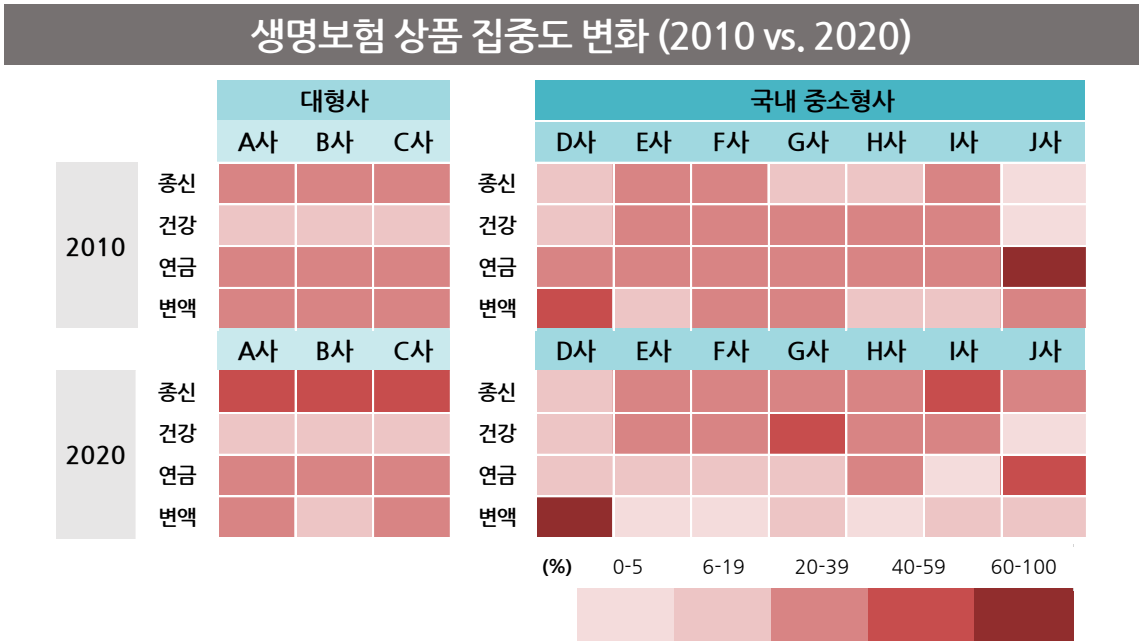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4. 회사별 개인보험 포트폴리오 변화

·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포트폴리오(저축보험 제외)는 일부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종신, 건강, 연금, 변액보험 중 종신 또는 건강보험에 집중하는 회사가 증가, 일부 변액보험 집중도 확대

· **회사별 개인보험 상품전략 차별화는 개별회사 성장성과 수익성 분산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



주: 저축보험 제외,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상위 10개 국내생명보험회사 대상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 2021년 상반기, 2020년 10% 이상 고성장한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짐

·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높은 성장세 (2020년 8.3%, 2021년 상반기 9.4%) 유지

· 과거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다변화되는 모습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20 1/4	2/4	3/4	4/4	'21 1/4	2/4
장기보장	8.5	7.2	6.4	6.3	6.0	6.7
장기저축	-17.2	-18.0	-13.8	-9.1	-9.0	-17.7
자동차	9.6	13.4	13.8	9.8	6.3	3.8
일반손해	16.6	6.7	7.4	2.5	8.5	10.3

주: 장기저축에는 개인연금이 포함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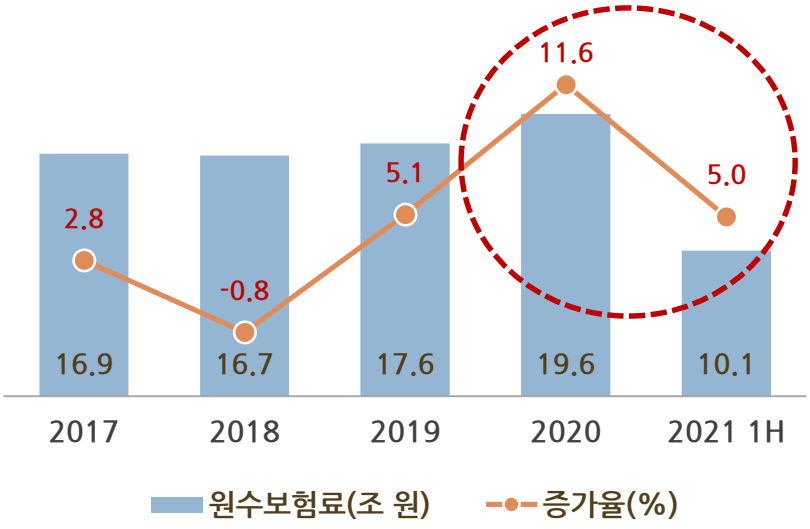
4-1. 자동차보험

· 2021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로 5.0% 증가에 그침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21년 2월 3.11%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1년 5월 2.76%까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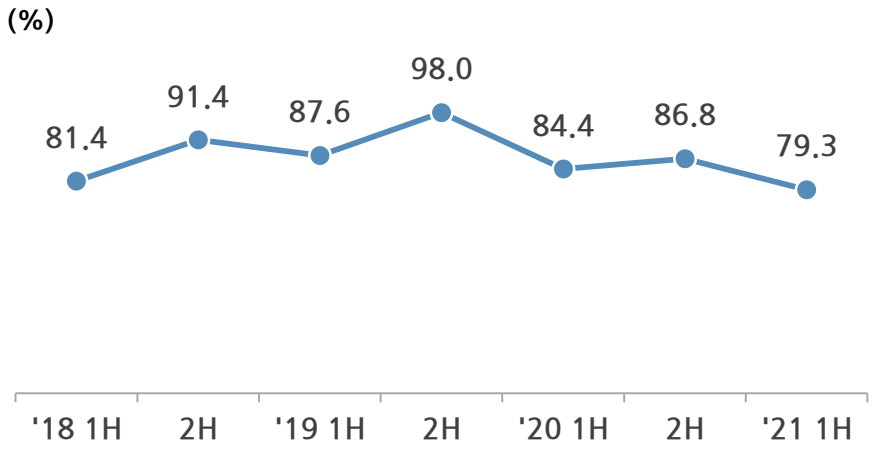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79.3%까지 개선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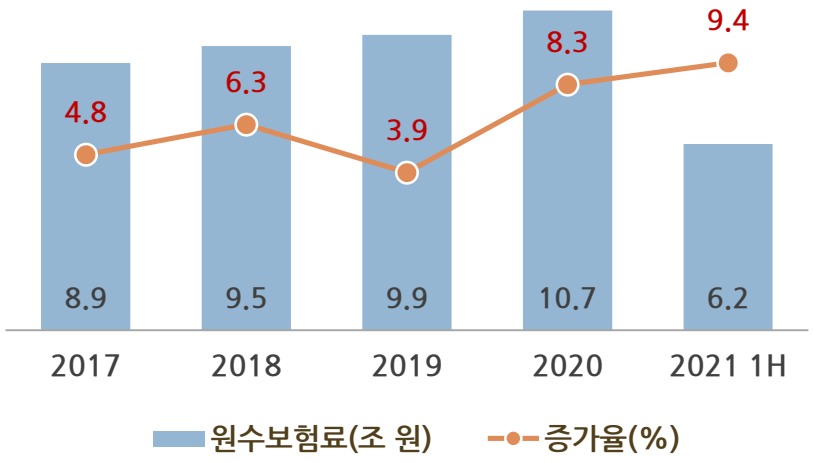
주: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2. 일반손해보험 (1)

· 2021년 상반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특종보험 고성장으로 9.4%의 높은 성장세 유지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 수요확대로 고성장,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시장 확대로 성장

· 2020년에도 일반손해보험은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8.3%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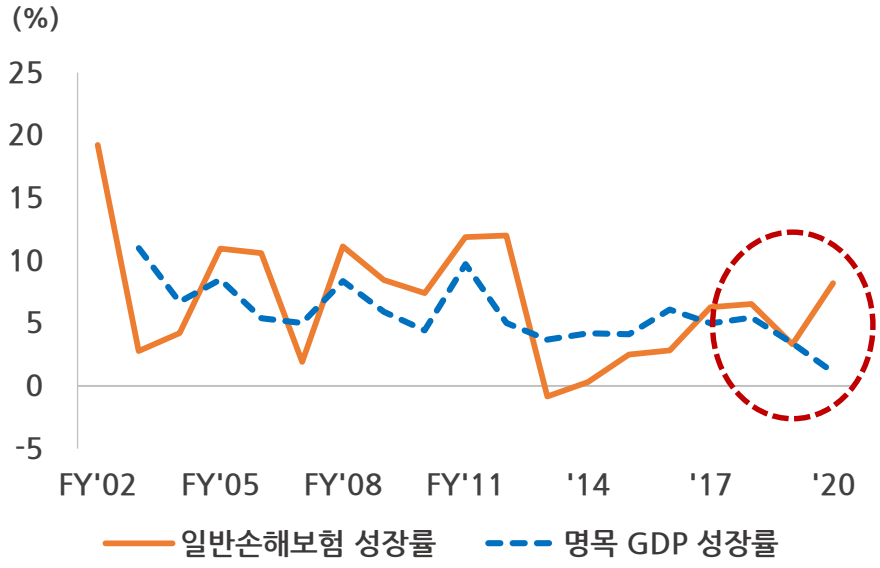
증가율(%)	'20 2/4	3/4	4/4	'21 1/4	2/4
화재	-1.4	1.3	5.7	10.8	18.3
해상	25.4	5.5	-6.0	-8.9	-4.4
보증	-3.4	6.3	11.2	2.4	6.0
특종	8.1	8.1	0.6	11.5	12.6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2. 일반손해보험 (2)

- 일반손해보험은 대부분 기업성 보험으로 경기에 민감, 명목 GDP 성장률에 1년 후행
- 그러나 2020년 이후 일반손해보험은 전년도 경기둔화에도 불구 고성장 기록
- 일반손해보험은 산업구조 변화에 편승하여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손해보험 성장률과 전년도 GDP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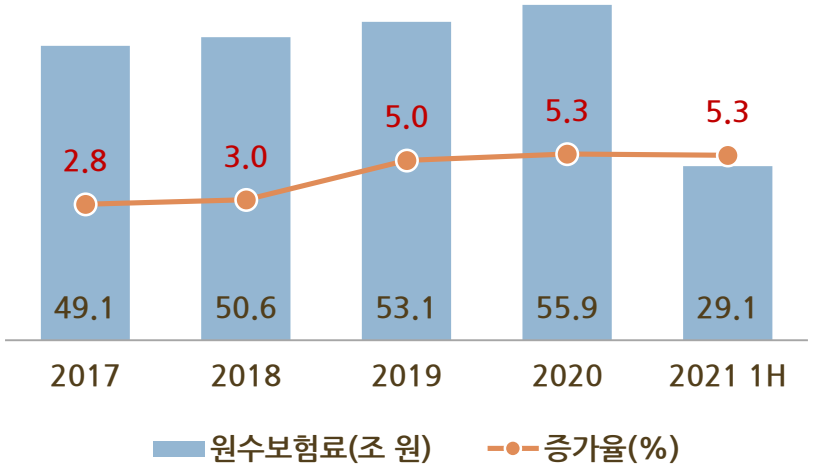
산업구조 변화와 일반손해보험

- 인공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휴대폰 보증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보장 영역 부상
- 킥보드, 드론과 같은 뉴모빌리티의 등장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의무보험 도입
- 4차 산업 부각에 따른 신규 리스크 보장확대,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형 등장 예상

4-3. 장기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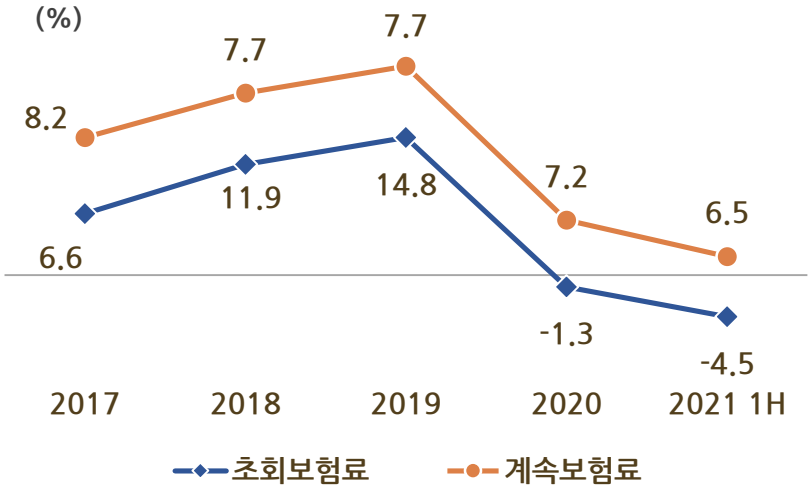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장기손해보험은 5.3% 성장하면서 2019년 이후 5%대 성장 유지
- 2021년 상반기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4.5% 감소
- 장기 보장성보험은 초회보험료 감소 불구 갱신보험료 위주의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 중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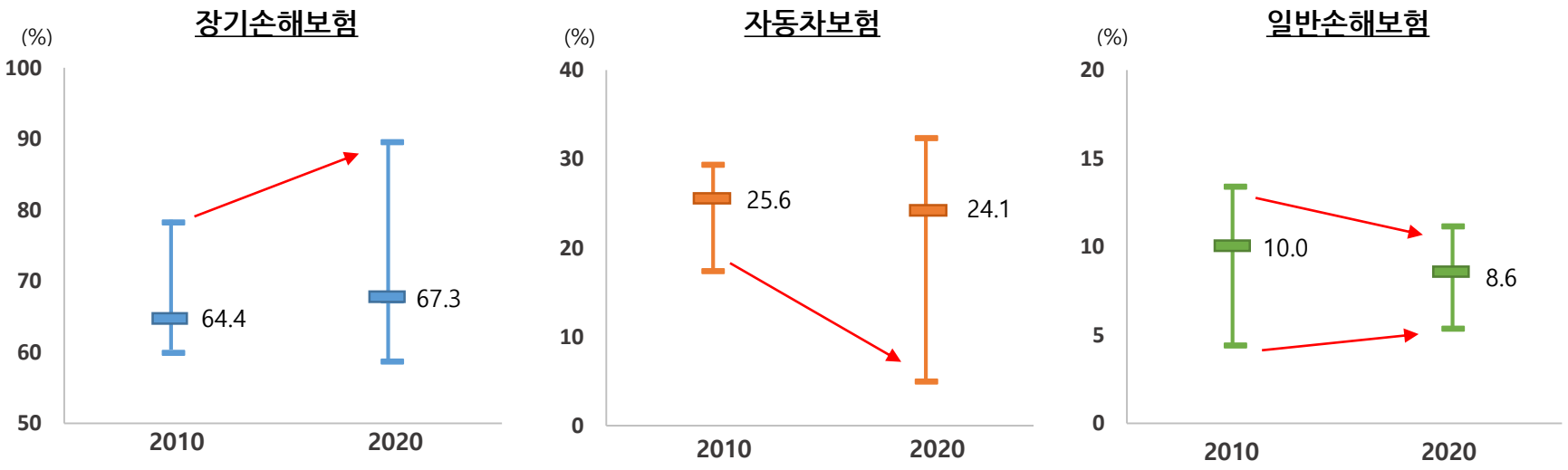
4-4. 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 지난 10년간 중형사를 중심으로 장기손해보험 비중 확대 및 자동차보험 비중 축소 경향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회사별 차이가 축소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변화는 회사별 차별적 영향, 일반손해보험 성장은 고르게 나타날 가능성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 종목별 비중 변화 (2010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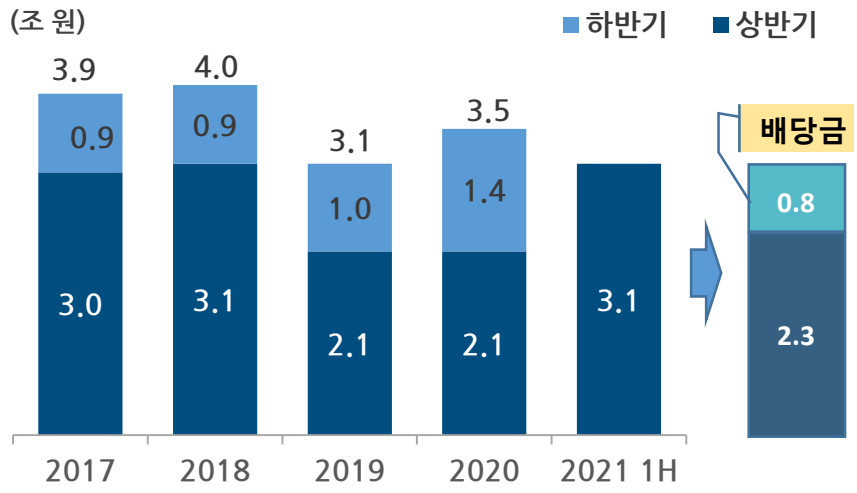


주: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점유율 상위 8개 국내손해보험회사 대상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 2021년 상반기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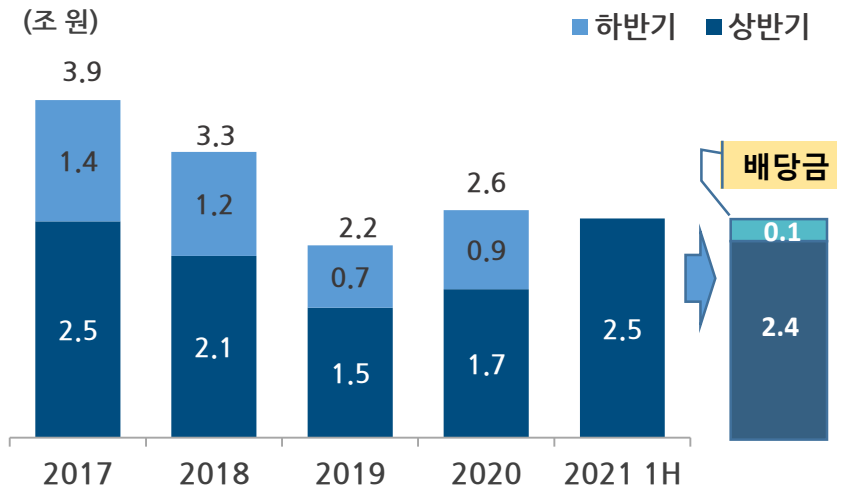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일부 보험회사의 일시적 특별배당금 수령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
- 특별배당금을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각각 13.1%, 39.3% 증가
  - 자동차 및 건강보험 손해율 개선과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견인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주: 배당금은 2021년 초 지급된 특별배당금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주: 배당금은 2021년 초 지급된 특별배당금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6. 2021년 하반기 예상

·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반사효과 지속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성장성) 저축보험 및 자동차보험 기저효과, 투자형 보험 수요 정체

· (수익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손해율 개선효과 둔화

2021년 하반기, 기저효과 부각되고 우호적 환경요인 희석

성장성: 기저효과 부각

- 예비적 저축수요 감소
- 주식시장 정체에 따른 투자형 보험 수요 약화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본격화

수익성: 우호적 환경요인 희석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으로 차량운행량, 의료이용량 영향 둔화
- 변액보험 준비금 환입 정체

Ⅲ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1. 2022년 보험료 전망 개요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5. 보험업권 퇴직연금

1. 2022년 보험료 전망 개요 (1)

2022년 보험산업,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 기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로 2021년 말 '위드 코로나' 가능성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

경제 정상화와 보험산업

✓ 민간소비 회복
✓ 설비투자 및 수출입 완만한 증가
✓ 건설투자 회복 본격화
✓ 금리의 점진적 상승

❯

✓ 개인보험 수요 확대
✓ 기업성 보험 성장 유지
✓ 화재보험, 이행보증보험 수요 확대
✓ 장기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단,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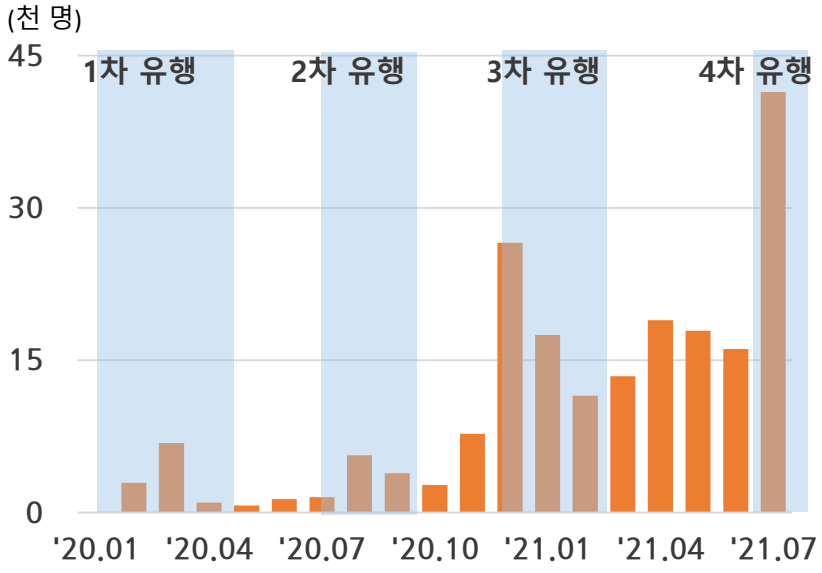
-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 유동성 증가세 둔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1. 2022년 보험료 전망 개요 (2)

· **코로나 19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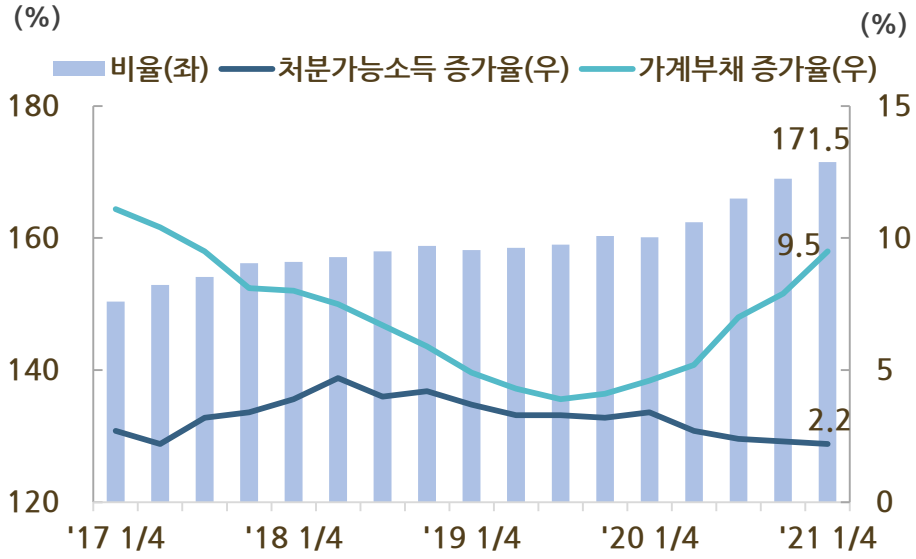
-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불구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종식 여부 불확실
-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 할 경우 소비심리 악화 가능

코로나19 월별 확진자수 추이



자료: 질병 관리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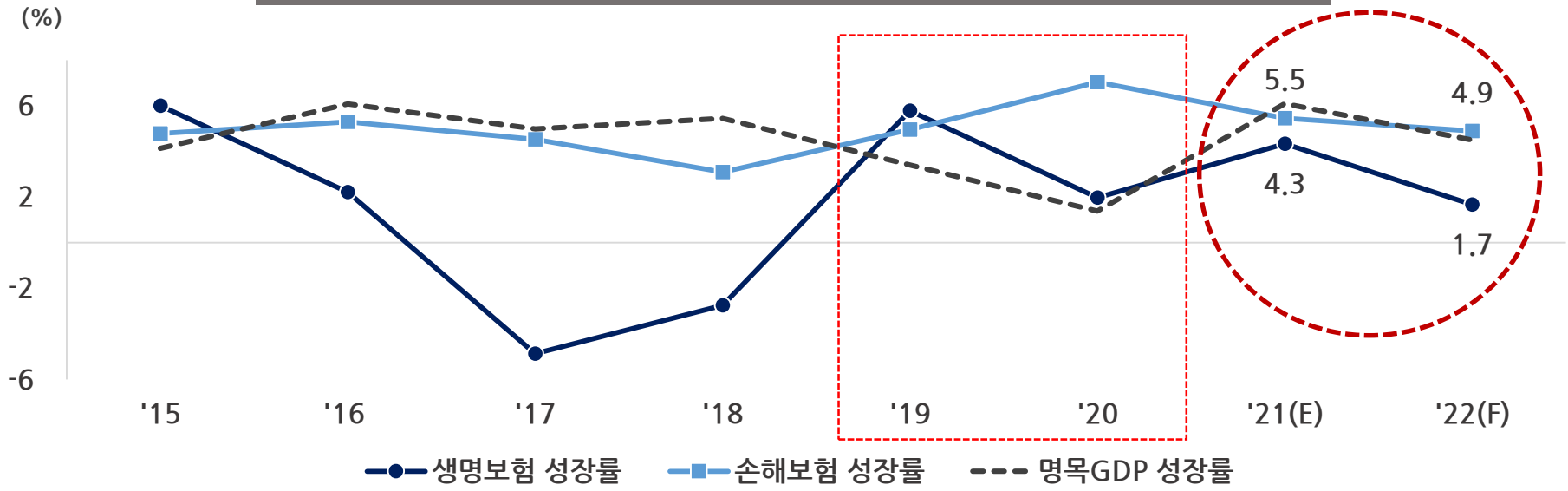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 2022년 보험료 전망 개요 (3)

- 2021~2022년 보험산업은 2020년의 이례적 성장세 종료 후 명목경제성장률 수준 성장 예상
-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 전망
-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양호한 성장 전망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장기 성장성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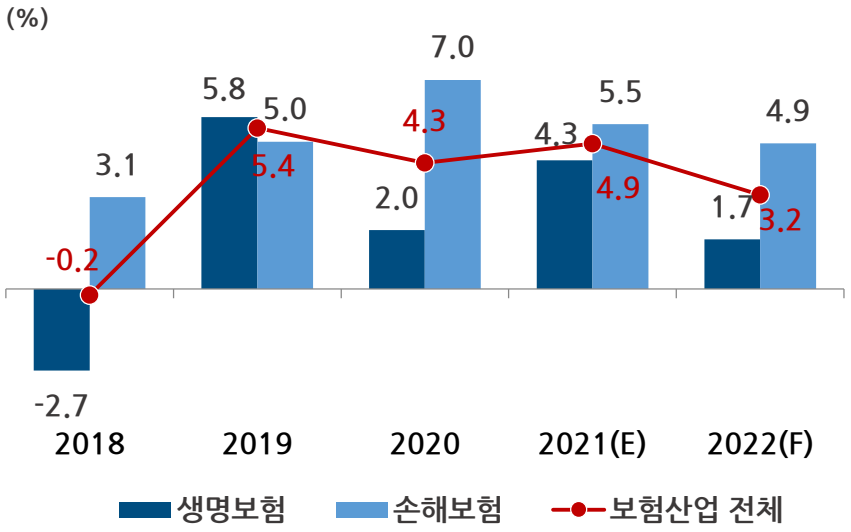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수입(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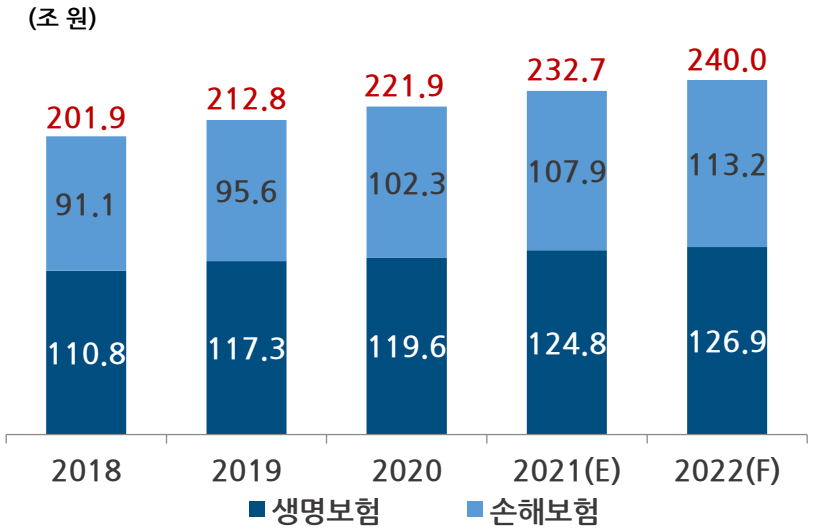
· 2022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1년 4.3% 에서 2022년 1.7%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1년 5.5% 에서 2022년 4.9%로 양호한 성장세 유지 전망

· 2022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40조원 수준으로 전망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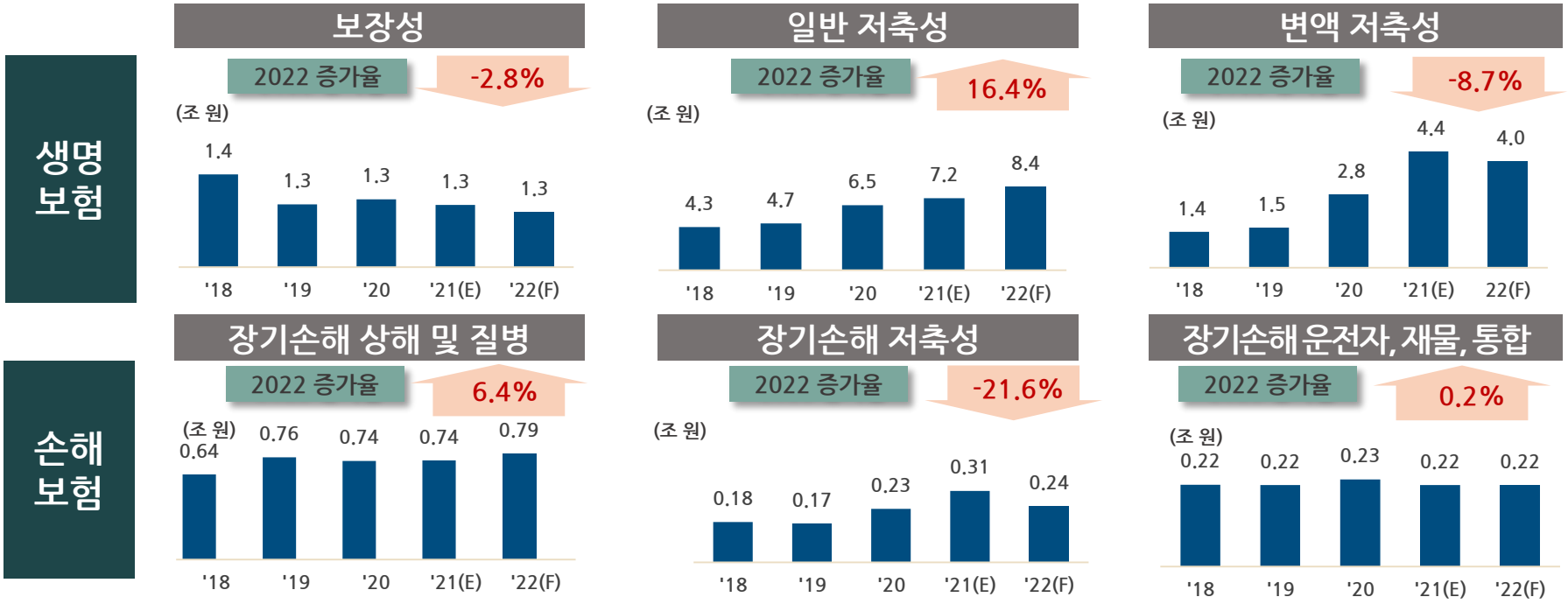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약화로 완만한 감소세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은 2012년 급증한 보험의 만기도래 후 재가입 수요로 증가 전망
- 변액보험의 경우 2021년 신규가입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 소폭 감소 전망
-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은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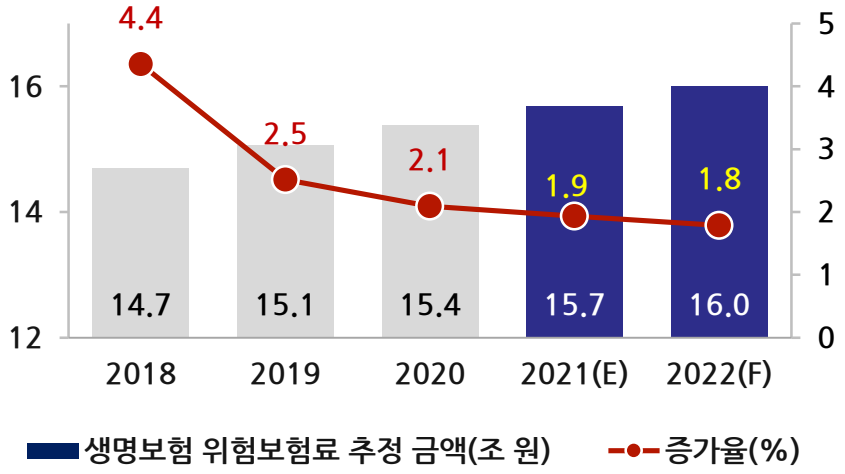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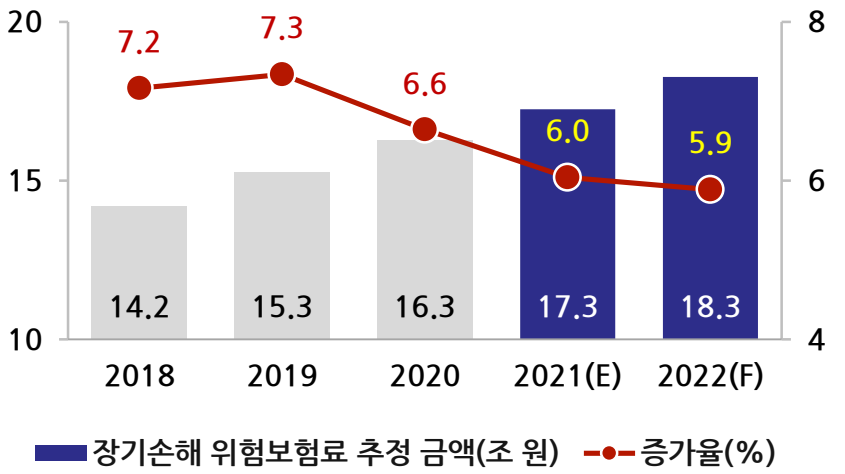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위험보험료

- 2023년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주요매출은 위험보험료로 인식
-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추정한 2022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은 각각 1.8%, 5.9%로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8년 이후 위험보험료 증가는 추세적으로 둔화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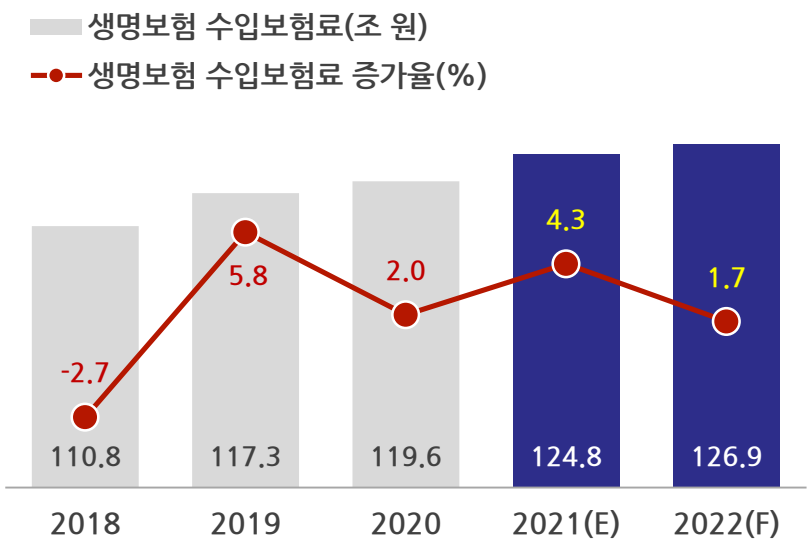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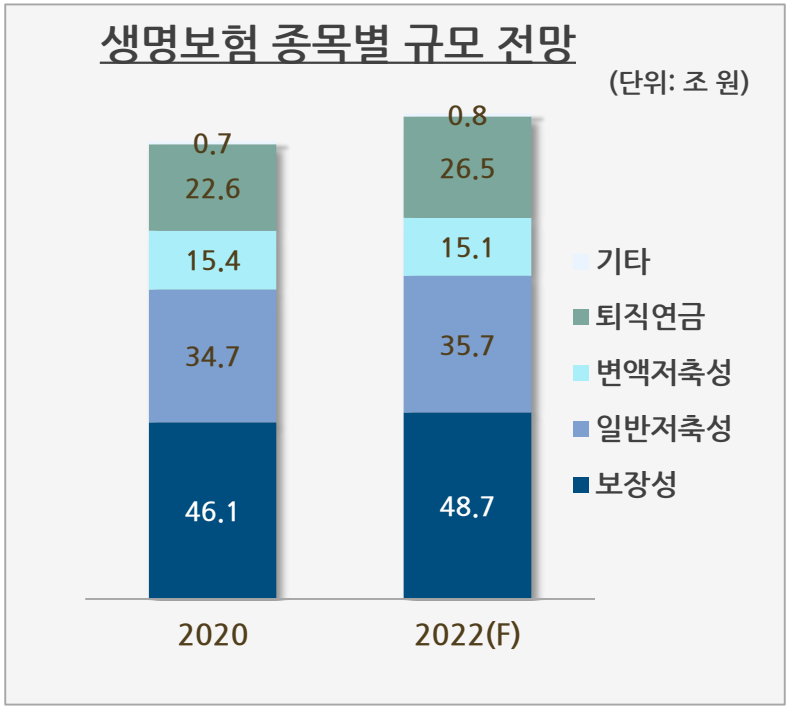
·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등으로 1.7% 증가 전망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성장둔화 불구, 질병·건강보험 수요확대로 양호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 불구,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효과 등으로 성장 예상
- 변액저축성보험은 직접투자 선호로 인한 계속보험료 감소로 수입보험료 감소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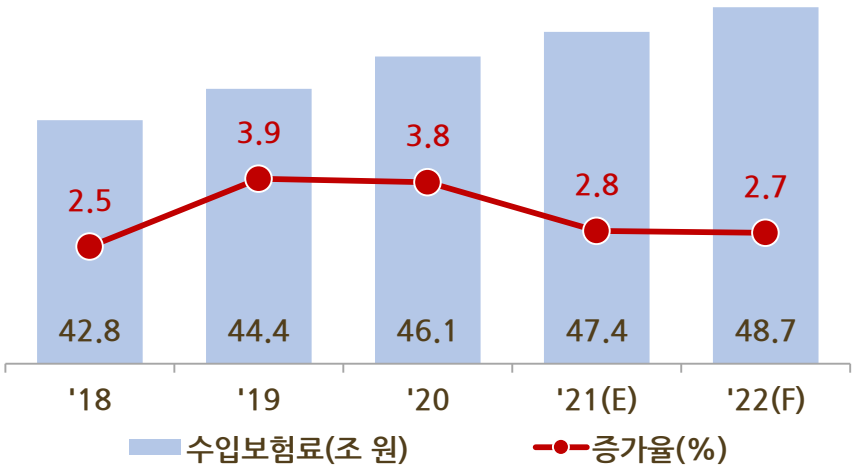


3-1.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변액보장성보험 포함)

· 보장성보험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의 2.7% 성장 전망

- 경제 정상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 판매환경 개선은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
- 또한 IFRS17,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 예상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소비심리 개선
- 대면 영업채널 환경 개선
- 코로나19 이후 건강보장 관심 확대
- 제도변화 대비 적극적 마케팅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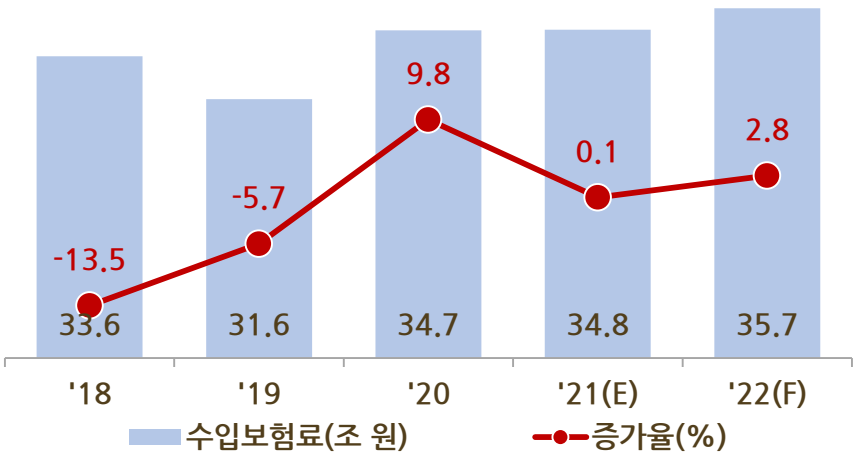
-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
- 건강보험시장 업권 간 경쟁 확대

3-2.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되겠으나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료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로 2.8% 증가 전망**

- 2012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요건 강화로 전년대비 25.6조 원 증가한 85.0% 성장
- 10년 만기가 도래하는 2022년에 만기보험금 중 일부가 재유입 될 것으로 예상
- 연금보험의 경우 IRP와 같은 투자형 상품과 경쟁 심화로 지속적인 위축 전망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만기 후 재가입 수요 예상
- 은행업권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 확대 전략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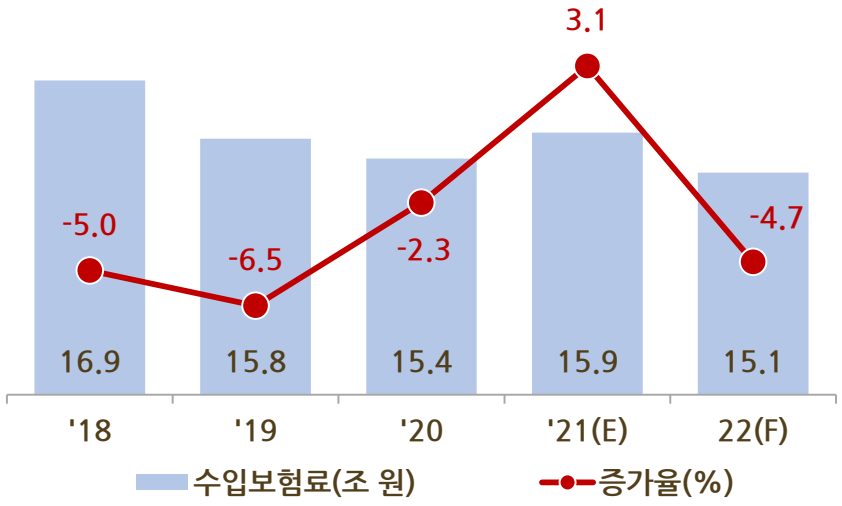
- 상대적 금리 경쟁력 약화
- IRP 등 투자형 상품과 경쟁 심화
- IFRS17, K-ICS 대비 보장성보험 강화

3-3. 생명보험: 변액저축성보험

·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 이후 투자상품 선호 확대로 신규 판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계약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4.7% 감소 전망**

-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투자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야기
- 그러나 기존 계약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 약화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
- 저금리 환경에서 대안 상품으로 부각
- 금융시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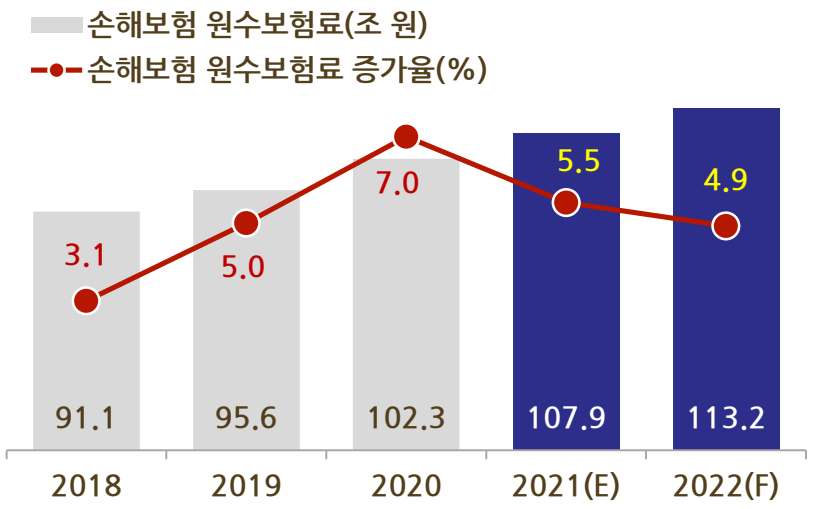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수익확정을 위한 해지 증가
- 타업권 투자형상품과의 경쟁 확대
- 전반적인 주식시장 민감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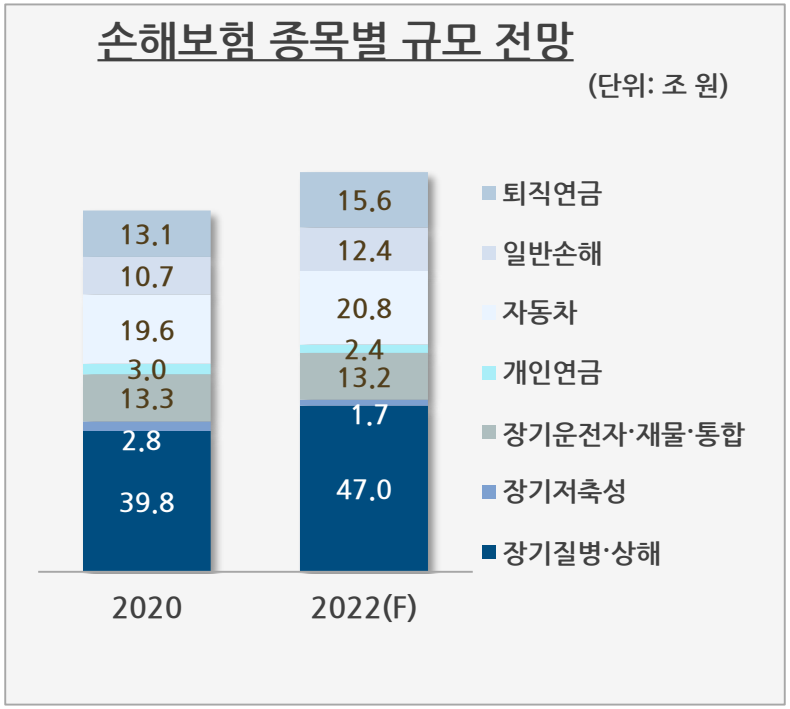
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4.9% 증가 전망
- 장기보험은 질병·상해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5%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보험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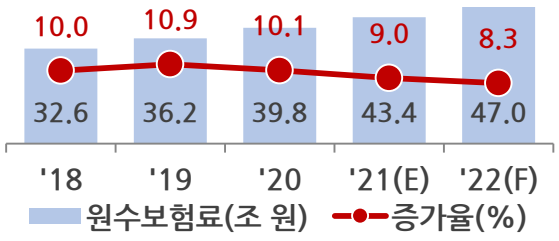


4-1. 손해보험: 장기 보장성보험

· 장기 질병·상해보험은 8.3% 성장, 운전자·재물 등 기타 보장성보험은 0.5% 감소 전망
- 질병·상해보험은 건강보장 수요 증가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성장 전망, 반면 재물보험과 통합형 보험은 부진 예상

1 질병·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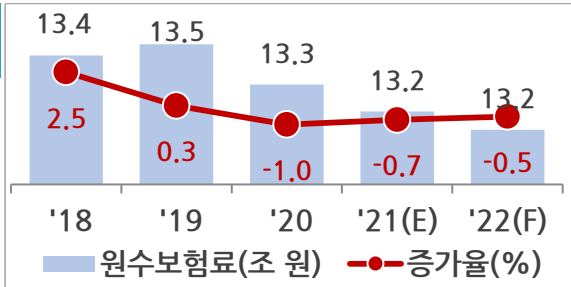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건강보장 수요 확대
- 간편심사보험 확대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증가

▼ 감소요인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소극적 판매

2 운전자·재물·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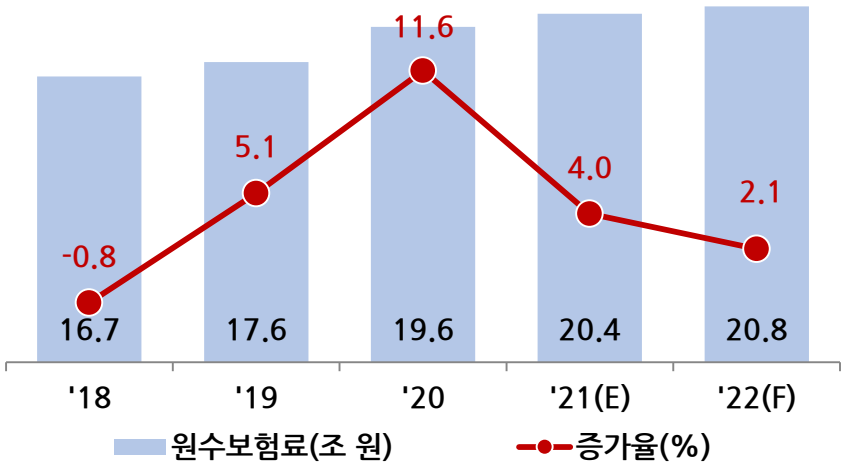
-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

-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4-2.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2.1% 성장에 그칠 전망**
-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전망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인해 대당 보험료 증가 제한적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고가 차량, 외산 차량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 지속 증가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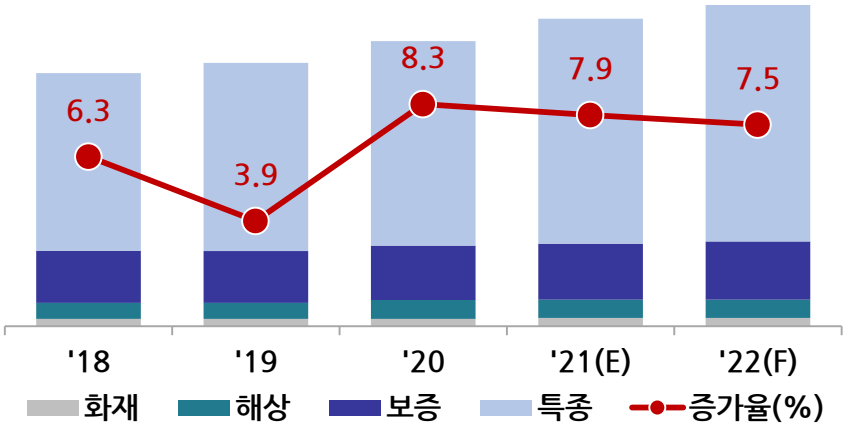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 운행거리 연동 보험상품 확대

4-3.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5% 성장 전망**

-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해 2.3% 증가 예상
-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확대와 조선수주 증가 등으로 0.2% 증가 전망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로 3.2% 성장 전망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농산물재해보험, 종합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9.4%의 고성장 예상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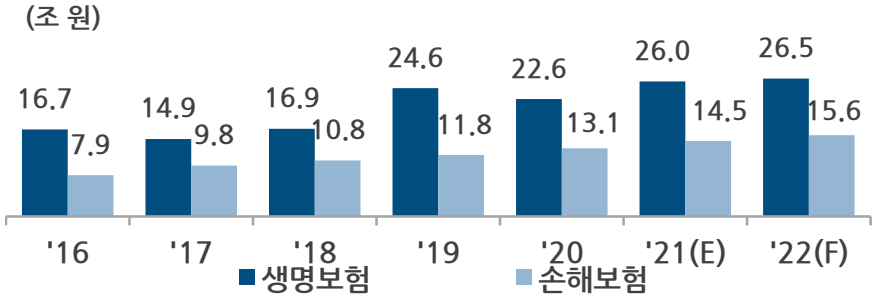
증가율(%)	'18	'19	'20	'21(E)	'22(F)
화재	-7.2	-1.2	1.6	9.5	2.3
해상	-7.6	0.8	17.4	-3.1	0.2
보증	12.1	-1.0	5.0	3.8	3.2
특종	6.8	5.9	8.7	9.9	9.4

5. 보험업권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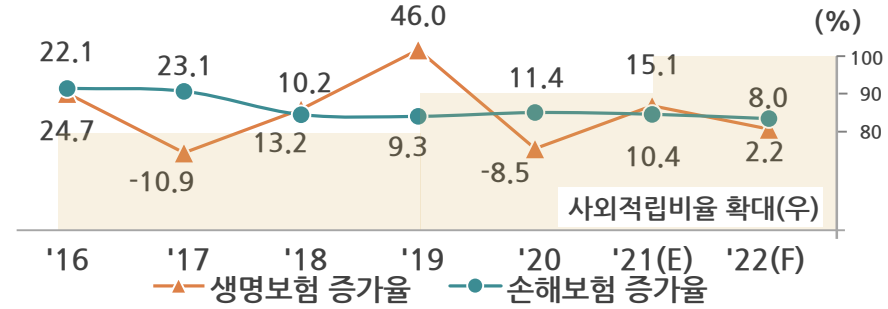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2.2%, 손해보험 8.0% 증가 전망**

- 생명보험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 되면서 낮은 성장세 예상
- 손해보험 또한 특별한 성장요인이 없어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IRP 시장 확대와 고용시장 개선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타업권과의 경쟁 심화는 부정적 요인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 증가요인

- IRP시장 확대 지속
- 고용시장 회복
-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 감소요인

-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 임금상승률 둔화

[참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7.3	5.8	119.6	2.0	124.8	4.3	126.9	1.7
보장성보험	44.4	3.9	46.1	3.8	47.4	2.8	48.7	2.7
저축성보험	47.4	-6.0	50.1	5.8	50.6	1.0	50.9	0.4
일반저축성보험	31.6	-5.7	34.7	9.8	34.8	0.1	35.7	2.8
변액저축성보험	15.8	-6.5	15.4	-2.3	15.9	3.1	15.1	-4.7
기타(일반단체)	0.8	0.6	0.7	-2.1	0.8	0.7	0.8	0.4
퇴직연금	24.6	46.0	22.6	-8.5	26.0	15.1	26.5	2.2
퇴직연금 제외	92.6	-1.4	97.0	4.8	98.8	1.8	100.4	1.5

[참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95.6	5.0	102.3	7.0	107.9	5.5	113.2	4.9
장기손해보험	53.1	5.0	55.9	5.3	58.9	5.3	61.9	5.2
질병 및 상해	36.2	10.9	39.8	10.1	43.4	9.0	47.0	8.3
저축성	3.4	-23.7	2.8	-20.0	2.2	-20.5	1.7	-21.4
운전자·재물 등	13.5	0.3	13.3	-1.0	13.2	-0.7	13.2	-0.5
개인연금	3.3	-6.4	3.0	-9.1	2.6	-11.6	2.4	-9.5
자동차보험	17.6	5.1	19.6	11.6	20.4	4.0	20.8	2.1
일반손해보험	9.9	3.9	10.7	8.3	11.5	7.9	12.4	7.5
퇴직연금	11.8	9.3	13.1	11.4	14.5	10.4	15.6	8.0
퇴직연금 제외	83.8	4.4	89.2	6.4	93.4	4.7	97.5	4.4

감사합니다.

보험연구원 세미나

2022년 보험산업 과제

김 해 식 (연구조정실장)

2021.10.8.

목 차

Ⅰ. 보험산업 진단

Ⅱ. 보험산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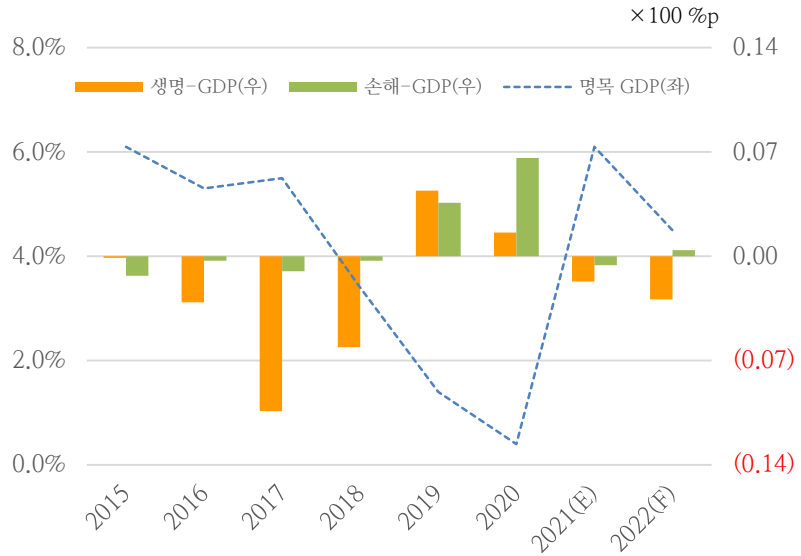
I. 보험산업 진단

자료: B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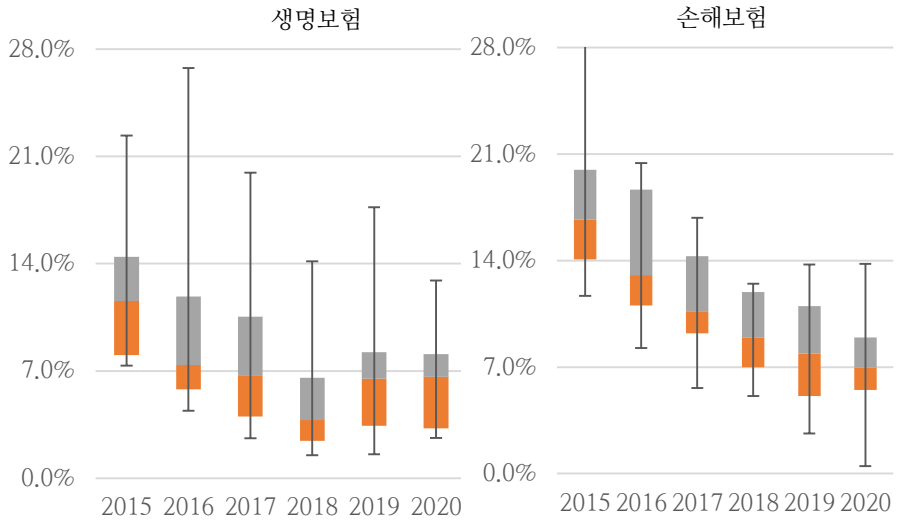
1. 성장 기회

- 새로운 성장 영역이 필요한 상황
  - (보험료) 코로나 19 반사효과 이후 다시 경제성장률 하회 구간 진입 예상
  - (자산) 손해보험이 보다 가파르게 하락, 현행 성장 모형의 작동을 점점 어렵게 할 것임

경제성장률 및 보험료성장률과의 격차 추이[1]



보험회사별 자산성장률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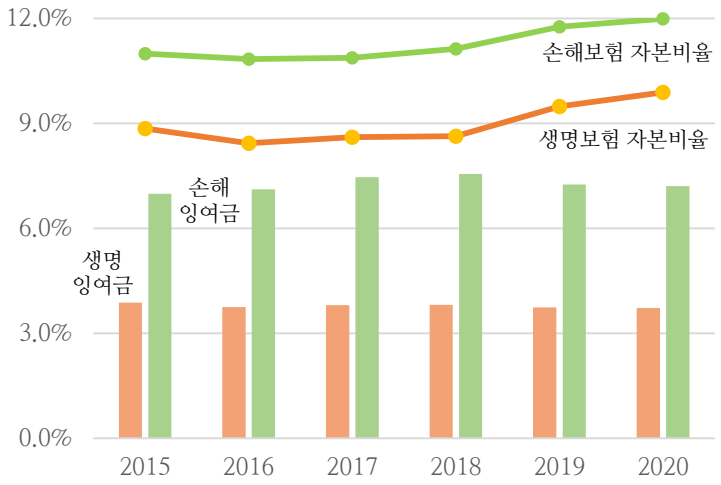


주: 1. 성장률 격차가 마이너스(-)이면 수입/원수 보험료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 플러스(+)이면 경제성장률을 상회
2. 자산성장률의 상자 상단, 중앙, 하단은 각각 75, 50, 25분위수, 최상단과 최하단은 각각 90, 10분위수를 나타냄,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취급사 대상.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사업모형의 변화

- K-ICS/IFRS17 대응 자본비율 개선
  - (투자) 장기 안전자산 보유 요구가 늘어난 가운데, 저금리 환경에서 고수익 투자 유인도 증가
  - (상품) 보험회사별 상품 특화, 전통 상품(책임준비금)과 변액/퇴직(특별계정) 간 비중 변화

자본비율 및 이익잉여금비율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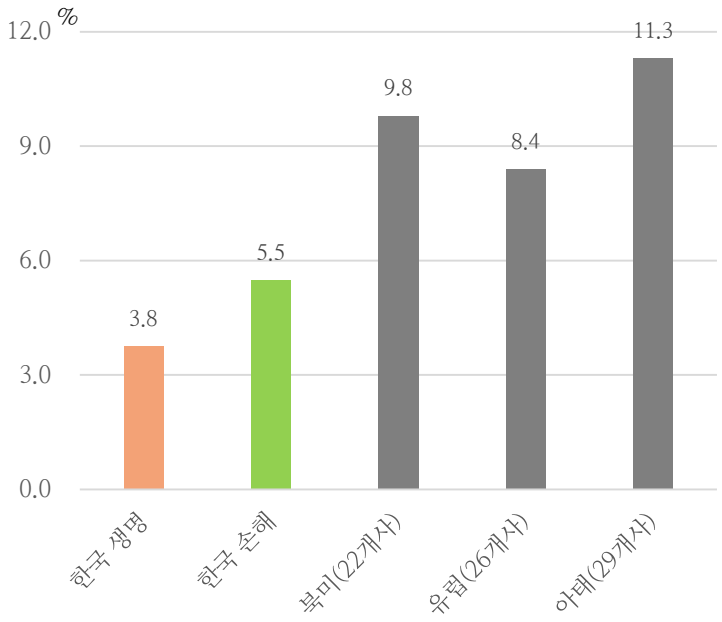
투자와 상품 변동 현황 (2015~2020)[2]

주: 1. 총자산 대비 비율.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취급사 대상
2. 자산 항목별 변동은 총자산 구성비를 활용하여 산출. 변동지수 = Σ [당년도 구성비 × 절대값(자연로그(당년도 구성비 ÷ 전년도 구성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3. 낮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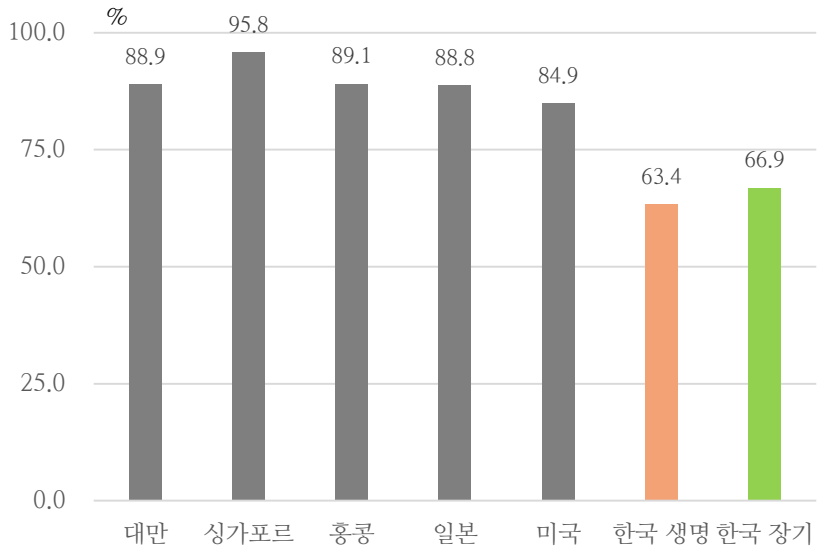
- 저금리 레거시를 가진 유럽 보험회사 ROE의 ½~⅔ 수준
  - 저금리 환경에서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므로 근본적으로는 부채 조정 필요
- 장기보험의 2년 경과 시점 유지율은 해외 보험회사의 ¾ 수준으로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 반영

보험회사 ROE 해외 비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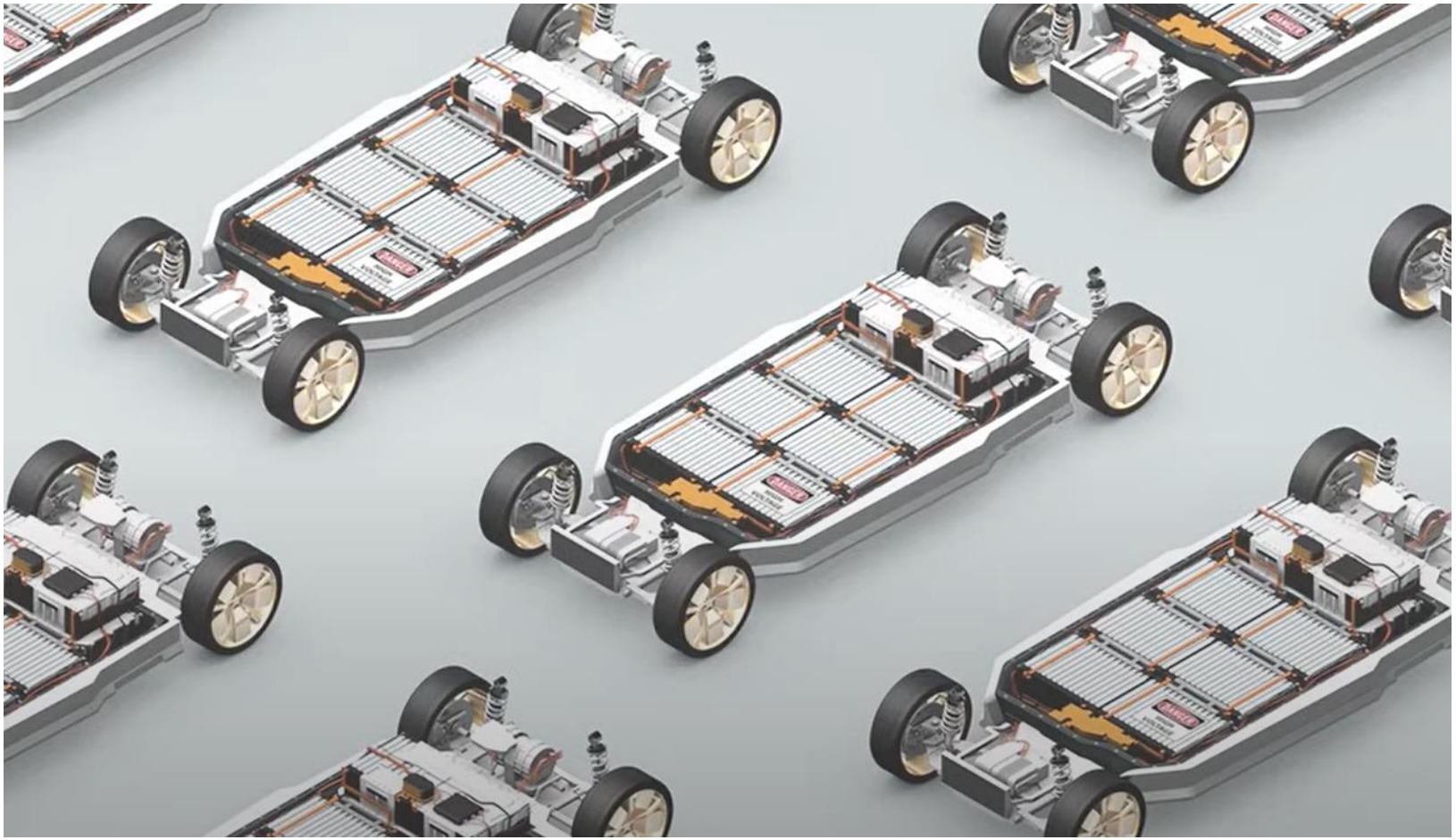
주: (국내) 산업평균 ROE, (해외) ROE 중위값, 생·손보 겸영회사를 포함
자료: Swiss Re(2020), Sigma, 4/2020

장기보험 유지율 해외 비교 (2019)



주: 25회차 유지율
자료: 김동겸(2021),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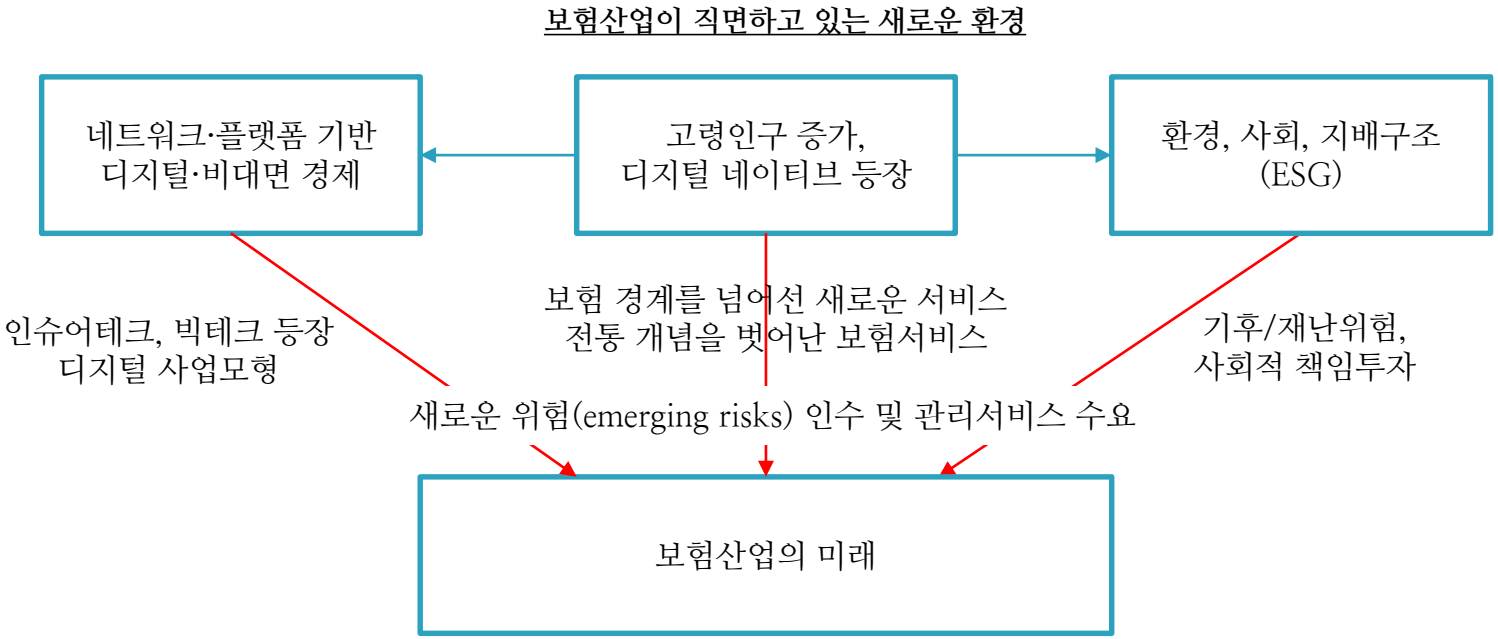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과제



자료: Tesla

1. 새로운 전개

- 2022년에도 사업재조정과 경쟁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DT)은 여전히 보험산업 현안
- 저금리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불균형 개선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소비자층 등장
  - (소비자) 디지털에 능숙하고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인 MZ세대와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 (사회적 역할) 위험인수를 통하여 실물경제와 사회안전망 기여는 물론 ESG 경영 요구 증대



자료: 김세중·김유미(2021), "Next Insurance (II)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CEO Report, 08/2021. 수정 인용

2. 2022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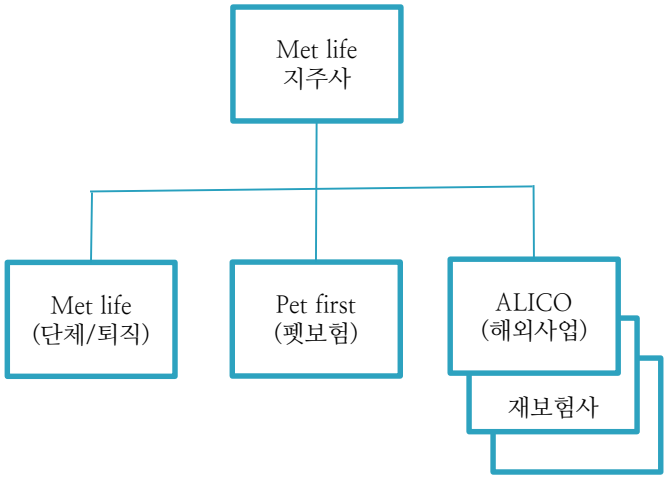
-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 전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과제에 도전할 필요
  - (4대 과제) 시장혁신 촉진, 본업(위험인수/장기투자)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ESG 경영

도전과제	시장 혁신	본업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ESG 경영
경제적 역할 강화 → 실물경제 기여 제고	① (시장혁신/사업재조정) 다양한 형태의 보험그룹조직 허용 ② (시장혁신/디지털 전환 사업모형) 디지털 경쟁력 제고	③ (본업역량/위험인수역량) 새로운 위험 관리 수요 대응 ④ (본업역량/장기투자역량) 장기투자 인프라 및 위험평가		
사회적 역할 강화 →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⑤ (소비자 신뢰/시장규율) 감독규제 혁신 ⑥ (소비자 신뢰/소비자 이해) 세대별 소비자경험 분석	⑦ (소비자 신뢰/민원제도 개혁) 소비자 갈등위험 관리 ⑧ (이해관계자 신뢰/ESG 경영) ESG 평가지표 및 공시		

1) 다양한 형태의 보험회사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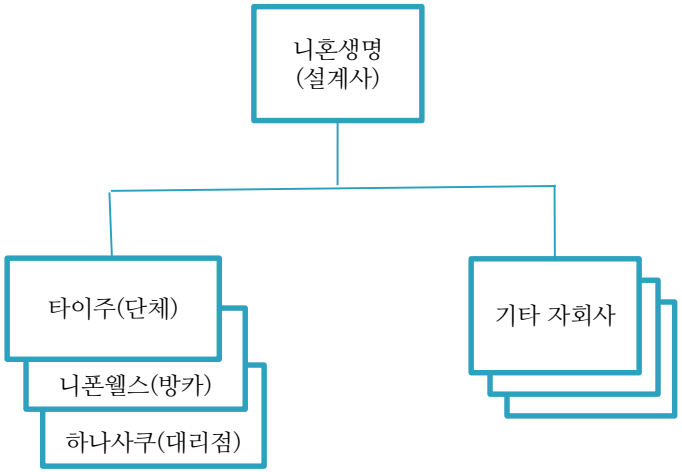
- 보험회사가 **다양한 전략과 조직을 선택**하여 환경 변화 대응력을 높이도록 유도
  - (신규·사업재조정) **비례적 규제와 '1사多면허제'**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잔존계약관리전문회사(Run-off) 진입 등으로 **자발적 구조조정 인프라**를 형성
  - **(업무위·수탁)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보험생태계 조성에 대비

미국 메트라이프(Metlife) 그룹 사례



- 2017년 단체보험과 퇴직연금에 집중하기로 하고 Brighthouse Financial(지분 19,2%)에 개인 생명보험과 연금을 분사
- 최근 Pet first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사업에 진출

일본 니혼생명 그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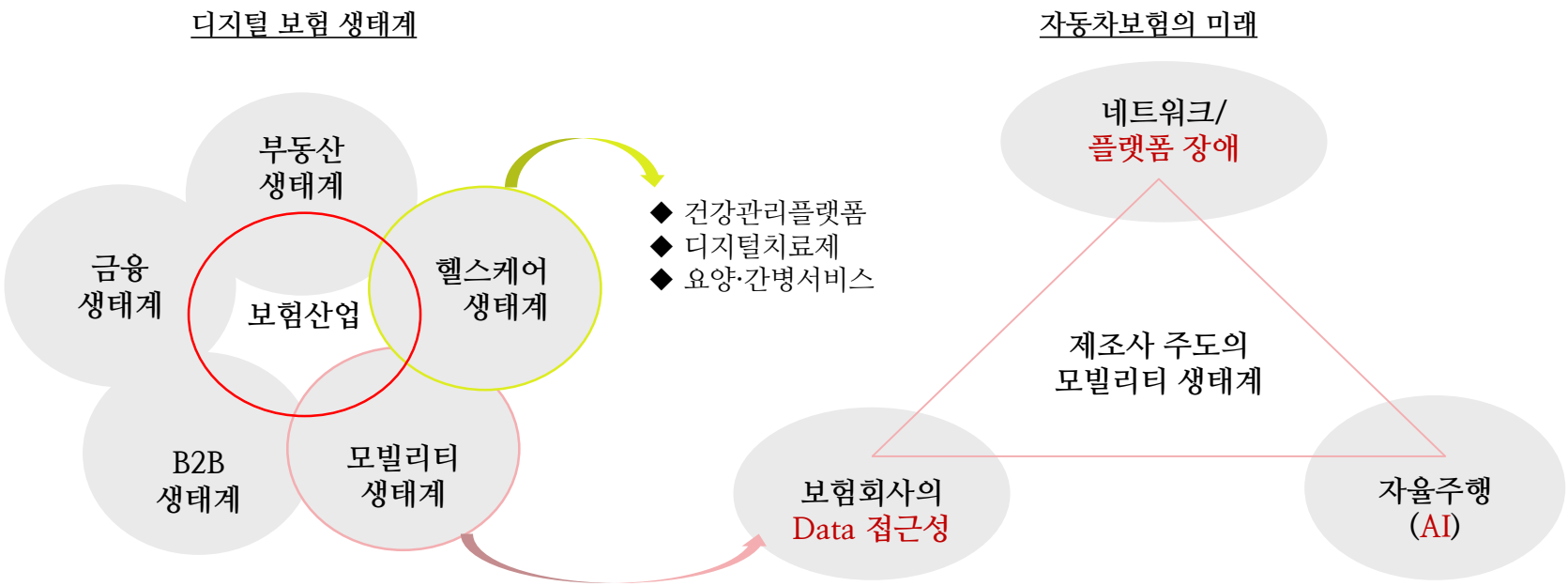


- 판매채널 특성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대응
- 2019년 내점형 대리점 전문 회사인 하나사쿠생명 설립

자료: 임준 외 (2021),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김석영·이소양(2020)

2) 디지털 경쟁력 제고

-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결합의 효과성 제고
  - (고객 맞춤형) 데이터 결합·활용 통해 도출한 데이터 한계와 대안
- 플랫폼의 자연독점적 특성, 데이터 접근성, 플랫폼 장애, AI 윤리기준(설명가능성) 마련
  - (공정경쟁, 영업행위규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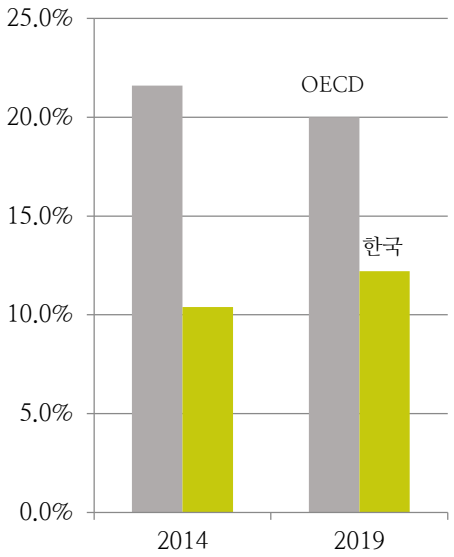


자료: 손재희 외(2021), 황현아(2021), 이승준·정인영(2017)

3) 위험인수와 장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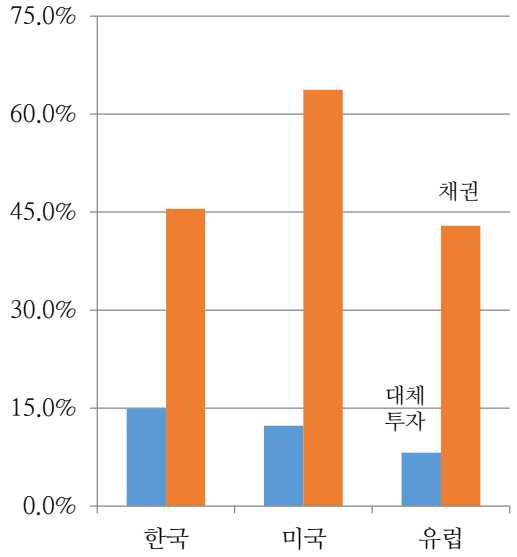
- 기후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위험과 서비스 수요에 대응
  - (새로운 위험, 서비스) 재난위험 등 **중소기업의 보험가용성** 제고, 연금 등 장수위험 대비체계 점검, **요양·간병서비스** 활성화, **건강관리·예방서비스**, 이와 관련한 **민관협력 강화**
-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투자인프라정책과 리스크감독** 개선 필요
  - (구성비 조정) 그린/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기대체투자 재조정

사회복지지출 해외 비교



새로운 위험 인수 및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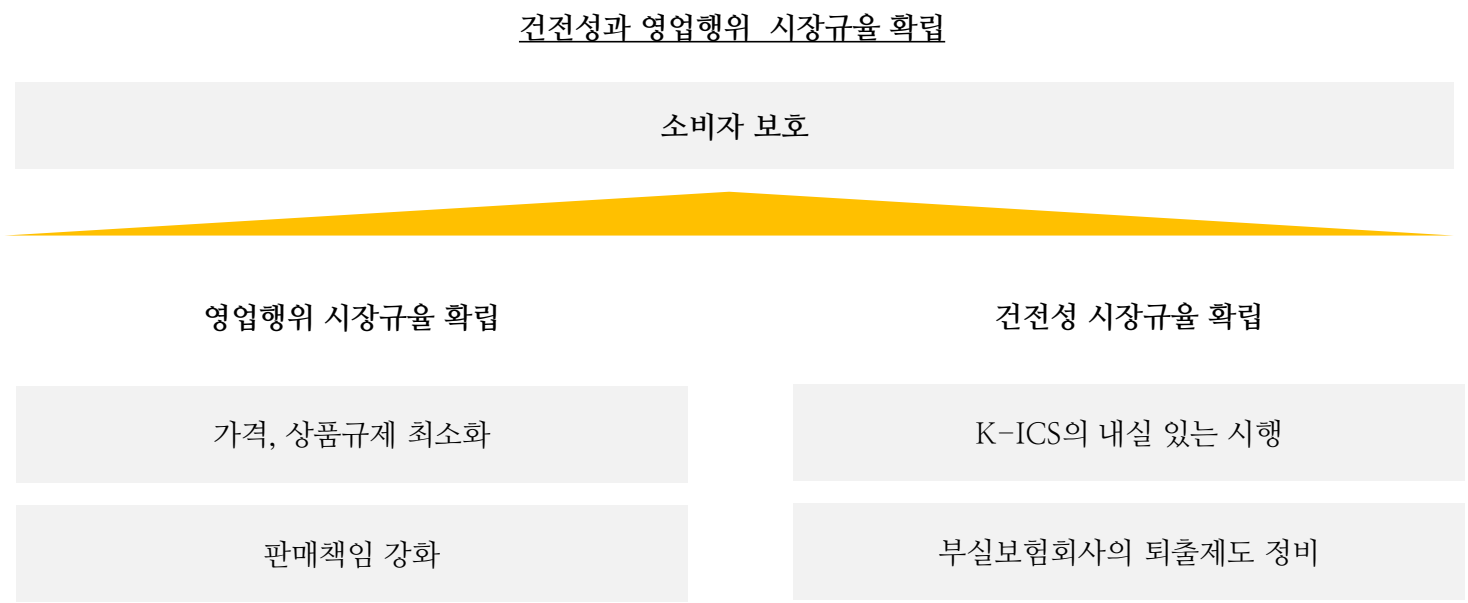
장기투자 비중 해외 비교



주: 운용자산 중 장기투자 구성비의 해외 비교에서 한국과 유럽은 2020.9월, 미국은 2019년 기준
자료: 정성희 외(2021), OECD Social Expenditure, 박희우(2021)

4) 감독규제 혁신

- 보험회사 및 상품의 좋고 나쁨을 시장이 판단하게 하고,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혁신 필요
  - (상품 자율) 그림자 상품규제는 영업행위 및 건전성 사후규제의 취약성을 반영한 거울이미지
  - (판매책임 강화) 대형 GA는 금융회사에 준하여 판매책임을 지도록 함
  - (K-ICS) 자본의 충분성이 잘 드러나게 제도를 보완해가고, 공시를 통해 시장이 평가하도록 함



5) 소비자 경험과 민원 해결

- 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해도 제고
  - (세대 분석) 인구, 세대별 특성 분석, 구매의사결정에서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소비자 경험 분석
-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소비자 갈등위험관리, 다양한 형태의 민원해결 창구
  - (위험관리) 상품개발~보험금지급 단계별 소비자 갈등/분쟁 위험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강화
  - (민원) 금융당국에 집중된 민원을 분산하여 민원해결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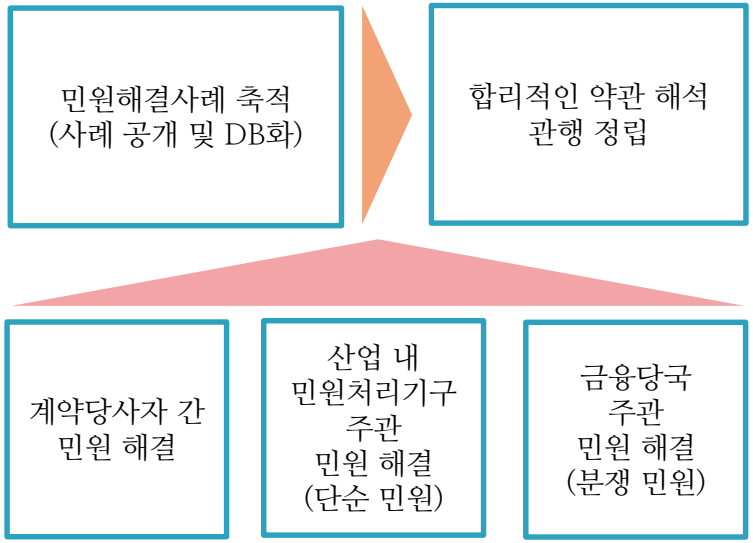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경험 제고

〈디지털 보험이 제공하는 고객 가치〉
ⓐ 유연함, ⓑ 개인 맞춤형, ⓒ 실시간 접근, ⓓ 끊김 없는 연결

〈상품설계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 실시간, 개별화된 보험상품 제공
- 위험 사전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
- 다양한 생태계 연계
-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접근 가능
- 빠르고 편한 심사/선제적 보험사기 예방, 신속한 청구 절차

〈빅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데이터 기술, 디지털 채널

당사자 간 의사결정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민원해결



자료: 손재희,박희우(2021), 변혜원 외(2021)

6) ESG 경영

- 보험위험 인수 및 장기투자자로서 ESG 위험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 (지표) ESG 범주, ESG 관련 해외 보험워킹그룹 사례 통한 평가지표 도출
  - (공시) 보험산업의 ESG 위험 노출 현황, 공시 의무화(전체 상장사 대상 2030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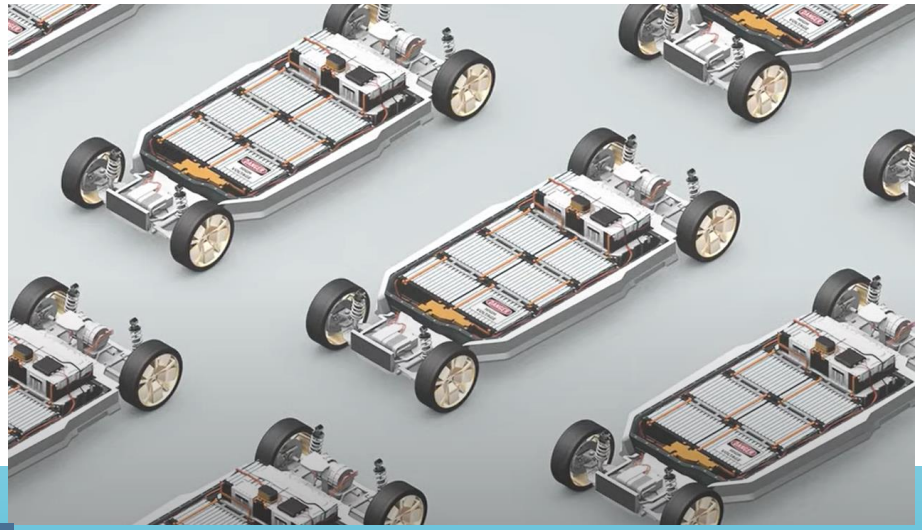
보험회사 ESG위험 관리 역량 제고

보험위험 인수자	E	• 보험위험 인수, 보험금 지급 과정의 기후변화 경감 • 탄소중립 이행사업 관련 위험보장 상품 제공 • 재난위험 예방, 복구 서비스 제공	• 방재대책 관련 민관협력
	S	• 영세 자영업자 영업중단손실 보장과 연금 상품 지원 • 디지털 환경 노동자 직업위험, 건강위험 관련 서비스	• 미소보험 개발 • 자영업자 연금 등 개발
	G	• 기업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	• 지배구조 관련 평가기준 비교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개선
장기투자자	책임투자	• ESG위험을 고려한 자산구성 조정 • 투자결정 시 ESG 요소 적극 반영, 주주권 행사 • ESG 가치 자본화 및 거래시장 조성 기여	• ESG 공시 비교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개선

자료: 변혜원 외(2021), “Next Insurance (III) ESG와 보험산업”, CEO Report, 09/2021

KiRi 보험연구원

감사합니다!



김해식
haeskim@kiri.or.kr